

2021 무지개다리사업 결과자료집

# 오색빛깔 조약돌



## CONTENTS

### 1. 2021 무지개다리사업 [오색빛깔 조약돌]

- 무지개다리사업 오색빛깔 조약돌
- 문화다양성 소개
- 사업 추진 현황

### 2. 2021 무지개다리사업 추진

- 문화다양성 주간 행사 및 홍보
- 조약돌 네트워크
-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아카데미
- 문화다양성 인식 개선을 위한 실험실
- 충북 문화다양성 집담회
- 문화다양성 사업 자료 구축

### 3. 무지개다리사업 부록

- 충북 문화다양성 조례
- 2021 도정 및 군 소식지 문화다양성 원고
- 2021 충청북도 무지개다리사업

# 2021 무지개다리사업

---

- 무지개다리사업 오색빛깔 조약돌
- 문화다양성 소개
- 사업 추진 현황

1. 무지개다리사업 [오색빛깔 조약돌 소개]

2012년부터 시작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다양한 문화주체들간 문화소통 및 문화 예술교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를 통해 참여자들이 문화주체로서의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색적이고 다양한 문화에 대한 열린 시각과 창의력 증진 및 나아가서는 우리나라의 문화다양성 발전을 도모합니다.

오색빛깔 조약돌은 다양성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오색빛깔의 조약돌이 옹기종이 모여 있는 모습을 모티브로, 작은 조약돌이 어우러져 모일 때 함께 빛나는 오색빛깔의 아름다움, 즉 문화다양성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충북문화재단 사업명입니다.

2. 문화다양성 소개

문화다양성이란 집단과 사회의 문화 표현되는 다양한 방식을 의미하며 문화다양성은 여러 가지 문화적 표현을 통해 인류의 문화유산을 표현하고 풍요롭게 하며 전달하는데 사용되는 다양한 방식 뿐 아니라 그 방법과 기술로 문화적 표현의 다양한 형태의 예술적 창조, 생산, 보급, 배포 및 향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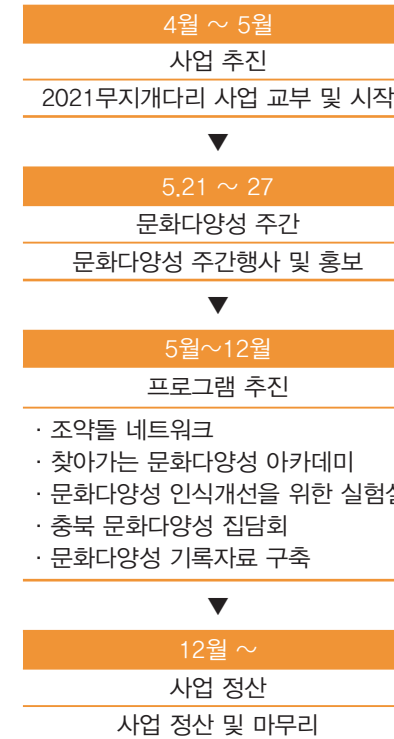
1.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1. 4 ~ 12월
- 사업대상 : 세대, 국적, 소수집단 및 일반도민

· 사업목적 :

· 사업내용 :

2. 추진일정



# 2021 무지개다리사업 추진

---

- 문화다양성 주간 행사 및 홍보
  - 조약돌 네트워크
-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아카데미
- 문화다양성 인식 개선을 위한 실험실
  - 충북 문화다양성 집담회
- 문화다양성 사업 자료 구축

# 1. 문화다양성 주간 행사 및 홍보

문화다양성 주간 내 문화다양성 관련 인식 확산 홍보 및 도민 대상 이해 증진 도모

문화다양성 주간, 지속적 홍보를 통한 접근성 제고

## 1)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1. 5. ~ 12월 ※ 문화다양성 주간 : 2021. 5. 21 ~ 27.
- 추진방식 : 온·오프라인
- 주요내용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문화다양성 인식 개선 확산

## 2) 추진내용

구분	추진	누적	정성실적	
충청권 공동 행사	리서 치북	1	200	· 광역문화재단별 문화다양성 주제 설정 및 리서치 북 제작 참여 · 충북주제 : 충북이주노동자와 인권
	릴레이영상	1	60	· 광역문화재단별 문화다양성 약속 키워드로 릴레이 영상 제작 참여
문화 다양성 홍보영상	문화 다양성 홍보영상	1	260	· 재단 내 sns(인스타, 유튜브, 문화이음창 등) 도민 대상 문화다양성 캠페인, 문화다양성의 의미 전달 가능 · 스리랑카 이주노동자, 장애인, 청년예술가 대상 삶의 모습 촬영
	라디오광고	1	56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라디오 매체를 통한 문화다양성 홍보 및 인식 개선 효과
충북 주간 행사	릴레이 칼럼	충북도 소식지 (100,000)	5월 : <b>다양성 존중으로 극복하는 코로나 19 위기</b> / 이완(아시아인권문화연대)	
		옥천군 소식지 (20,000)	7월 :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마을 만들기 / 오혜자(청주 초롱이네도서관장)	
			8월 : 문화다양성, 막연한 아름다움을 넘어 / 최선영(유구리최실장)	
			9월 : 모든 사람이 춤추는 세상. 상상하면 안될까요? / 이은규(인권연대 슝)	
			10월 : 살뜰한 만남 / 이상필(킨더리베 연구소장)	
			11월 : 문화다양성과 장애인 / 김지혜(청주 다사리학교 교무부장)	
		12월 : 한국에 문화다양성이 필요한 이유 / 안태호(한국문화정책연구소 이사)		
도내 매월 배부되는 인쇄매체를 통한 온라인 매체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고령 대상 문화다양성 인식 개선 효과 불특정다수 도민 대상 문화다양성 홍보 추진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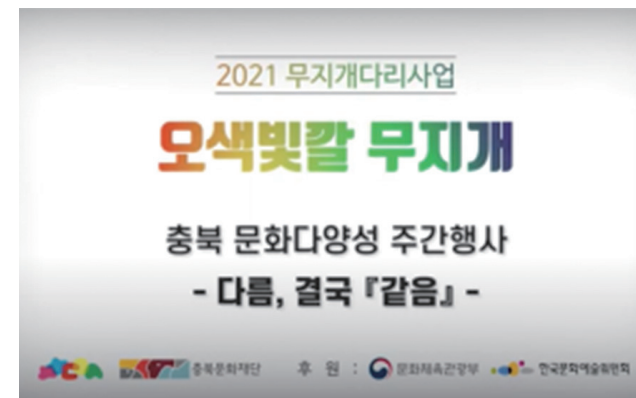
구분	추진	누적	정성실적	
홍보	보도자료	5	30	도내 무지개다리사업 및 문화다양성 사업 인지도 제고
	sns	3	3	충북문화재단 홈페이지, 문화이음창(카카오톡플러스친구), 인스타그램 게시 재단 내 키오스크 활용 홍보영상 상영(연중)
합계	19	220,609		



| 리서치북 |



| 릴레이 영상 |



| 문화다양성 홍보 영상 |



| 옥천소식지 기고 |

## 2. 조약돌 네트워크

도내 문화다양성 중장기 발전방향 및 이슈발굴

문화다양성 유관기관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사업 추진 내실화

### 1)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1. 4. ~ 12월
- 추진방식 : 온·오프라인
- 추진장소 : 충북문화재단 회의실, 각 재단별 공간 활용
- 주요내용 : 지역 문화다양성 중장기 발전방안 논의 및 참여주체 네트워크 구축

### 2) 추진내용

구분	추진	참여자수	추진내용
정책 자문 위원회	3	3	<b>참여자</b> : 이완(아시아인권문화연대), 정승희(여성), 오혜자(청주 초롱이네도서관) 1) 2021년 충북문화다양성 컨설팅, 평가 및 중장기 발전방향 제시 2)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계획 수립 3) 현재(코로나 이후) 고민해 봐야 하는 문화다양성 논의
라운드 테이블	4	6	<b>참여자</b> : 충주중원문화재단, 제천문화재단 1) 충북권 기초문화재단 실무자와 사업추진 의견공유, 프로그램 추진 시 협력구조 구축 2) 교육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 등 3) 참여자 대상 문화다양성 프로그램 참여 후기 및 개선사항 논의
충청권 네트워크	4	10	<b>참여자</b> : 대전, 세종, 충남, 당진 문화재단 1) 충청권역별 문화다양성 사업 관련 현황 공유 2) 무지개다리사업 실무자 네트워킹 구축을 통한 사업 추진 효율성 및 효과성 향상



| 정책자문위원회 |



| 충청권 네트워크 |



| 조약돌 네트워크 충북권 문화다양성 워크숍 |

### 3.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아카데미

일반 도민과 직·간접적으로 활동하는 유관기관 및 예술인 대상 문화다양성 인식 개선과  
가치 확산을 위한 교육 추진

#### 1)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1. 6. ~ 12월 / 18회
- 추진방식 : 오프라인
- 추진장소 : 교육 참여기관 및 예술단체 공간
- 주요내용 : 유관기관 및 예술인 대상 직접 찾아가는 방문형 문화다양성 교육 추진

#### 2) 추진내용

연번	일정	지역	기관 및 단체	참여자	강사 및 주제	비고
1	6. 23(수)	충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4	홍윤희 / 장애 인식전환	시즌1
2	6.24.(목)			13	안태호 / 문화다양성의 정책	
3	6.29.(화)	제천	청소년 문화의 집	4	문미희 / 장애 느끼고 깨닫다	
4	7.14(수)	청주	충북청소년종합진흥원	9		
5	7.15(목)	충주	충북장애인종합복지관	35	이완 / 문화다양성의 어제와 오늘	
6	11.1(월)	청주	충북문화재단	30	이완 / 문화다양성의 어제와 오늘	
7	11.19(금)	제천	제천복지재단	7	최종윤 / 언어감수성, 혐오와 차별	
8	11.29(월)	충주	충주시성악연구회	9	안승배 / 문화다양성	
9	11.30.(화)	충주	충주박물관	7	최종윤 / 문화다양성과 언어감수성	
10	12.1.(수)	보은	보은군노인장애인복지관	30	김수정 / 성인지 감수성	시즌2
11	12.2(목)	청주	청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30	최문정 / 성인지 감수성	
12	12.3(금)	청주	극단 청년극장	10	이완 / 문화다양성	
13	12.8(수)	청주	극단 새벽	6	최종윤 / 언어감수성	
14	12.9(목)	괴산	중원대학교 연극영화과	10	이완 / 문화다양성	
15	12.10(금)	청주	극단 청년극장	7	최종윤 / 언어감수성	
16	12.14(화)	괴산	중원대학교 연극영화과	7	문미희 / 장애	
17	12.14(화)	괴산	중원대학교 연극영화과	7	이완 / 문화다양성	
18	12.17.(금)	충주	충북장애인종합복지관	7	문미희 / 장애	



| 시즌 1 / 충북장애인종합복지관 |



| 시즌 1 / 충북청소년종합진흥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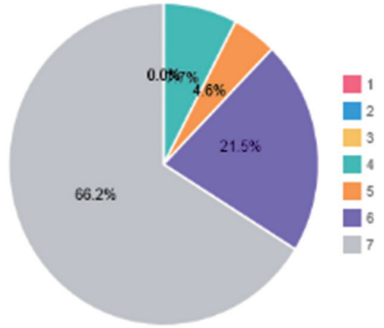
| 시즌 2 / 극단 청년극장 |



| 시즌 2 / 보은군노인장애인복지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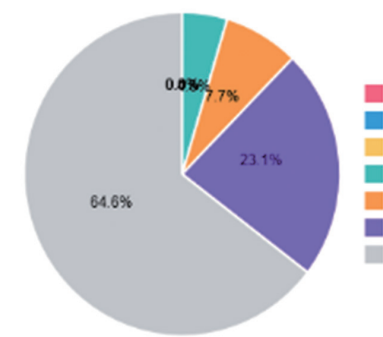
### 3) 만족도 조사

교육 목표의 명확한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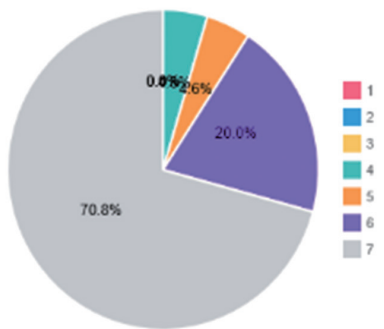
- 대다수가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문화다양성을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는 의견이 있음.
- 단일한 주제에 다양한 관점 해석을 통해 문화다양성을 이해할 수 있었다는 참여자의 의견이 있음.

교육에 대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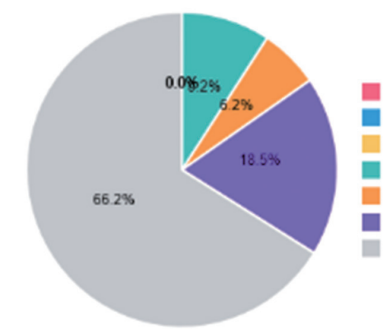
- 현대사회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 강의를 추천하고 싶으며 교육 주제와 내용이 가치있었다는 의견과 더불어 높은 만족도를 보여줌.

강사에 대한 평가(교육방식, 구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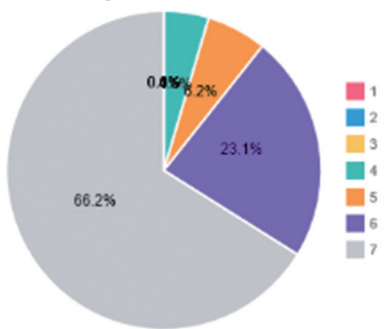
- 강사의 경험과 사례위주의 강의, 장애인 등 당사자가 아니라면 모를 수 있는 면을 이해하는 시간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음.
-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수업을 통해 새로운 관점을 키울 수 있는 계기 제공.

본 강의 재참여 의사



- 문화다양성을 경험하고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 이 강의를 더 듣고 싶어 했으며 강의시간이 부족했다는 참여자의 의견이 있음.

교육과정 난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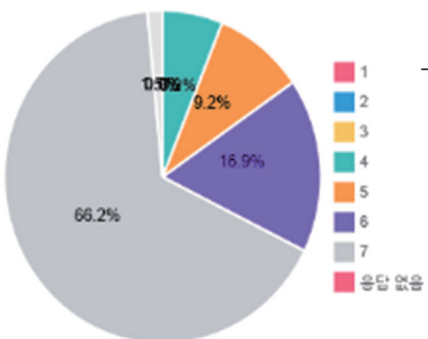


- 추상적인 개념, 문화다양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는 의견 등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는 의견이 많았음.

기타 의견

- 장애와 관련하여 시각에서 한정된 것이 아닌 다양한 장애 영역에 대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요구
- 1회성인 강의보다 지속적 교육과 체험형 교육 등을 통한 문화다양성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교육 구성
- 문화다양성 주제 중심 강의와 토론 시간으로 구성원의 생각 공유 시간 필요
- 젠더, 장애, 다문화 등 일반적 문화다양성 뿐만 아니라 세대 문화 등 세분화된 주제 강의 필요

참여자 활동 관련 교육의 영향력 여부



- 참여기관이 주로 장애인, 청소년 대상 복지와 상담이 이루어지는 기관이다 보니 이 강의를 통해 문화다양성을 토대로 대상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의견.

#### 4. 문화다양성 인식 개선을 위한 실험실

도민이 주체가 되어 생활속 문화다양성의 문제의식 활성화 및

주도적 해결을 위한 과정 중심 연구 기회 제공

##### 1)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1. 7. ~ 9월
- 추진방식 : 온라인
- 추진장소 : 개별공간 및 재단 회의실
- 주요내용 : 주제별(언어감수성, 성인지감수성, 장애) 도민이 직접 연구목표를 설정하고 문제 해결방안 연구 및 지원

##### 2) 추진내용

###### ○ 추진 일정

구분	일정	참여자	주요내용
오리엔테이션	8.3.(화) 13:30	14	문화다양성 실험실 안내 및 주제별 강의·토론
중간점검	8.31.(화). 14:00	11	주제별 문화다양성 실험 연구 주제 발표 및 연구과정 공유
성과공유회	9.17.(금). 14:00	13	주제별 참여자 연구 과정·성과 발표 및 연구 발전 방향 안내
자문회의	9. 27.(월) 10:30	4	프로그램 평가 및 향후 사업 추진을 위한 라운드 테이블 추진
합계		42	

###### ○ 연구성과

주제	참여자	정성실적(연구성과)
장애	4	발달장애인이 돌봄의 주체가 되었을 때 변화 관찰, 배리어프리 환경변화의 중요성
언어감수성	5	소수계층 관련 비하적 언어의 근원 및 대체 단어 연구, 언어감수성 관련 소책자 제작 및 대학교 내 배포
성인지감수성	1	성인지감수성 확대를 위한 젠더 인식 트레이닝 방법론 및 사회 내 성인지감수성 인식 부족 사례 연구
합계	10	



| 오리엔테이션 |



| 언어감수성 주제 참여자가 만든 책자 |



| 자문회의 |



| 장애 주제 참여자 연구과정 배리어프리 등 조사 |

## 5. 충북 문화다양성 집담회

도내 문화다양성 관련 자원, 환경, 등 현위치를 확인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 추진 방향 설정을 위한 논의 자리 제공

### 1)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1. 9. ~ 10월
- 추진방식 : 오프라인
- 추진장소 : 충북문화관 북카페
- 주요내용 : 충북 문화다양성의 현재와 미래 방향성 논의

### 2) 추진내용

#### ○ 참여자

구분	참여자 명단	
1회	조약돌 네트워크 정책자문위원회	이완(아시아 인권문화연대), 정승희(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오혜자(초롱이네 도서관)
	장애인예술매개자양성과정 멘토	최선영(유구리 최실장)
	광역도 무지개다리사업 실무자	김종민(경남문화예술진흥원 예술복지센터장)
	문화부 기자	이지효(중부매일 문화부 기자)
	기록자	고륜호(프리랜서)
2회	조약돌 네트워크 정책자문위원회	이완(아시아 인권문화연대), 정승희(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오혜자(초롱이네 도서관)
	前 경기문화재단 문화다양성 연구원	안태호(한국문화정책연구소)
	광역도 무지개다리사업 실무자	조정민(용인문화재단)
	문화부 기자	이지효(중부매일 문화부 기자)
	기록자	고륜호(프리랜서)

#### ○ 추진 일정

구분	일정	참여자	주요내용
1회	9. 9.(목) 14:00	7	충북 문화다양성 현황 파악 및 광역도로서 문화다양성 추진 방향성 논의
2회	10. 21.(목) 14:00	7	문화다양성 네트워크 구축 방향 및 문화다양성 조례 활성화 논의
	합계	14	



| 1차 집담회 |



| 2차 집담회 |

## <1차 충북 문화다양성 집담회>

### 2021 무지개다리사업 문화다양성 집담회

9월 9일

#### “충북문화재단에서 사업을 진행한지 6년이 지났습니다. 달라진 게 있을까요?”

**오혜자:** 딱히 떠오르는 게 없어요. 뭔가 특별한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정승희:** 재단이 운영하기 전에 청주대학교가 맡은 경우가 있었고, 저는 그때 2년 정도 참여를 했었어요. 제 머릿속에는 그 기간이 재단에서 진행한 사업보다도 뇌리에 강하게 박혀있어요. 글썽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알고 있을까요? 바뀌긴 했나요?

**오혜자:** 문화다양성에 대한 조례가 생겨나면서 사업적으로 변화가 생겨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딱히 없더라고요. 정보도 부족하고요. 국비지원사업에 선정되지 않으면 뭐라고 할 것도 없는 것이고요. 조례도 잘, 그리고 빨리 만들었는데 그 이후로 뭔가 진척이 없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최선영:** 잘 보여줬는데 잘 안 읽힌 건지, 아니면 잘 못 한 건지 판단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궁금하기도 하고요. 전자라면 어떻게든 자료로라도 축적이 됐을 거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잘 드러내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 거고요. 일단 무엇보다 충북재단이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사업 전체 흐름을 읽는 게 우선이라고 봅니다.

#### “ ‘문화다양성’ 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지효:** 들어보긴 했는데, 명확히 정의내리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재단이랑 관련된 사업들을 접하다보니까 명칭은 귀에 익숙한데, 각각의 사업들이 무슨 일을 하고 어떤 내용인지 깊게 파악하기는 어렵더라고요.

**이완:** 다르게 말하면 도드라지지 않은 거네요. 오랫동안 해왔는데 눈에 띄는 게 없다고 하면 지금 현재 상황을 진단해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무지개다리사업을 운영하는 재단이 전국에 꽤 많은데, 광역시 같은 데는 사업이 잘 돼요. 상대적으로요. 반면에 전남이나 충청도 쪽은 그렇지 못하다고 판단이 되곤 했죠. 원인이 무엇인지 우선 파악해야 할 것 같아요. 그 와중에도 경남이 사업을 잘 했다고 평을 받긴 해요.

#### “광역 문화재단에서 일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건 어려울까요?”

**김종민:** 지역 특성상 전부가 다 다르니까요. 어찌 보면 당연한 소리입니다. 연령대도 다르고 각자의 삶이 있으니까요. 개개인이 다양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하는 건 어렵겠죠. 우선 지역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해야 해요. 지역갈등도 있을 것이고, 문화다양성에 대해서 각자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지역별로 역사적인 배경도 다를 것이고, 그 트렌드를 파악해야 하는데 그러지는 못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고, 다른 사람들과 원만하게 피드백을 해야 하는데 말이지요. 협업과 네트워킹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충북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위원회만 가지고는 조금 약하다고 봐요. 충북문화재단연합회를 구성해서 그 안에 위원회를 두고, 조금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시너지를 기대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책적으로 힘을 실어줘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광역과 기초가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례도 만들고, 자문도 구하고, 예산도 갖추고, 정리해서 말하자면 기본 환경부터 갖춰야 한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조례나 예산이 어느 정도 확립이 된 다음에, 기초 재단을 거점으로 해서 인근 지역과 협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게 가장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플랫폼으로서의 광역재단 역할이 말이지요.

## “재단 내 사업 담당자가 자주 바뀌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완:** 제 입장에서 보면, 6년 동안 담당자가 6명이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문화다양성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한참을 고민하죠. 그 다음에는 같이 할 사람들 찾고, 만나고 묻고. 그걸 너무 자주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 같아요. 사람만 바뀌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최선영:** 저도 궁금했어요. 담당자와 같이 고민을 해야 하는데 말이에요. 문제의식이 이어지고 있는지 없는지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흐름이 끊긴다고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의식을 승계할지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체계가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담당자의 관심. 그게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재단 내의 환경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혜자:** 저도 그래요. 사업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계속 바뀌는 건 어쩔 수 없다고 봐요. 근데 문제의식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부분이 딱히 없는 것 같아서 아쉬운 게 있죠. 담당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꼼꼼하게 기록을 해놓으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과정 기록. 또, 민간 협력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재단 중심의 사업 구조가 아니라 다른 협업체랑 병행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 필요하다고 봐요. 계속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요. 맥락을 이어나갈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번에 있었던 조례 제정 과정이 되게 알차다고 보는데, 흐름이 끊기니까 순간적으로 사장당하더라고요. 그나마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완:** 공공기관에서 사람이 바뀌는 건 어쩔 수 없다고는 보는데, 문화다양성 사업은 네트워크 중심이라 사람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사업이랑 조금 다를 수도 있는 거죠. 사람이 바뀌는 건 개인적인 부분이라 불가항력이지만. 구로나 부천 같은 경우는 한 명이 엄청 오랫동안 해왔어요. 그래서 이제 사업 틀이 마련이 되었던 거고요. **근데 부천은 담당자가 10번이 바뀌었는데도 잘 났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왜 그러는지 알아보니까, 사람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직원 전체가 다 아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업을 이끌어가는 코어 사업체가 재단 밖에 있었어요. 재단 안에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지역 시민사회의 역량이 갖춰져 있는 거죠. 좋게 말하면, 나쁘게 말하면 드센 거고요. 그 힘으로 움직이더라고요. 저도 충북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되려면 적어도 몇 년은 필요해요. 2, 3년만 집중해서 투자를 해주면 다른 단체가 이끌 텐데, 그 시간을 견디지 못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해요.**

**정승희:** 문화는 하루 이들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들어지는 게 문화고, 그게 곧 에너지인데 아까 말씀해주신 것들을 겪으면서 회의감이 좀 들었어요. 충북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노인 인구 비율이 높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가야 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은 아쉬움도 있고요. 오랫동안 지역에서 활동해왔던 여성 단체들과 협력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문화예술 쪽에서는 지역에 있는 다양한 에너지를 끌어낼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으면 좋겠어요. 잘 안 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야금야금 모여서 앞으로 나아가는 힘을 얻는 건데 말이지요. 제 입장에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긴 해요. 오늘 한 일이 내일로 연결되게 하는 가교 역할은 하지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더 모여서 모레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영:** 문화다양성 사업의 실제 가치를 생각해봤을 때는, 행사를 몇 번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가 진심으로 그들을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충북문화재단에서 그런 노력이 얼마나 있었는지, 그게 가능한 구조인지가 궁금해요. 인력이나 그런 걸 포함해서. 만약 있었다면 외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문화다양성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었을 것 같은데 말이지요. 사업 방향을 잘 고민해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렵죠. 재단이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 같긴 해요.

**이완:** 문화다양성 측면으로 봤을 때 재단의 운영 방식은 적절한가가 가장 중점이 되겠네요. 미안하긴 한데, 재단이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는가도 싶어요. 각자 자기 일하기 바쁠 거 아니에요. 재단 담당자들한테 물어보면, 나도 납득하기 어려운 걸 재단 바깥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달해야 하는지 엄청 고민하고 있다고들 해요. 말이 안 된다고. 조직 안에서 다양성 교육을 먼저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말도 굉장히 자주 들어요. 실천하는 담당자와 조직 자체가 변화해야 하는 게 현재 상황에 대한 솔루션이라고 봐요.

## “어떻게 해야 사업 담당자와 직원들의 가치관을 바꿀 수 있을까요?”

**김종민:** 지금은 각 부서가 바리케이드를 치고 있잖아요. 서로 공유가 되고 있지 않죠. 문화다양성이라는 건 전부 포괄해서 하나로 묶어야 하는데 말이죠. 외국인학교라든가, 합창단을 꾸린다든가. 할아버지 시대의 노래를 손녀들이 따라 한다든가. 전부를 묶어서 하는 게 문화다양성이라고 보는데.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봐요.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재미가 있어야 합니다. 가치는 충분히 아는데, 재미가 없으면 이어지지 않죠. 어떻게 사람들로 하여금 흥미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경남에선 메타버스, e-스포츠와 관련된 문화다양성 콘텐츠를 많이 만들고 있어요. 대회도 많이 열고, 학생들도 많이 참여하고요. 게임에 대한 인식도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가상세계에 대한 부분을 문화다양성과 접목시켜서 재밌게 풀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어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지 깊게 고민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최선영:** 문화다양성은 포괄적인 거라고 말씀해주셨어요. 다들 정의롭고 선한 얘기만 많이 하죠. 사실 현실은 혐오, 차별, 미움, 충돌이 발생하죠. 하지만 갈등이 있어야 뭔가 드러나기도 하고요. 근데 문화다양성 사업은 착한 모습만 보이려고 해요. 그래서 지루하다고 평을 받죠. 말로만 들으면 세상 사람 모두가 정의롭고 세계의 영웅이에요. 프로그램을 6년 동안 해왔다면, 큰 질문만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조금 더 개별적이고 작은 질문이 무엇이었는데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큰 질문이 작은 질문으로 넘어갈 수 있는 흐름이 필요한데, 오랜 시간 동안 큰 질문만 해온 게 아닌가. 정말 겪어본 사람들은 별 얘기를 다해요. 장애인이 싫다는 말도 있고요. 정말 겪어본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얘기죠. 근데 재단에서 하는 걸 보면 전부 착하고 좋은 얘기만 해요.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사업을 통해서 재단이 무엇을 보려고 하는지도 정리해봐야 할 것 같아요.

**정승희:** 인권을 얘기하는 것과 같다고 봅니다. 인권은 일상이죠. 일상이 곧 문화고, 다양한 문화가 모여서 문화다양성이 완성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단계별로 나가는 거 없이 뜬금없이 문화다양성이라는 말을 던져주니까 버거운 거죠. 점차적으로 사업의 범위를 늘려나가는 데 힘을 써야 하지 않나 싶어요. 특별히 ‘인권을 존중해줘!’가 아니라, 일상에서 사소한 부분을 들어야 한다고 봐요. 그걸 우리가 못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오혜자:** 얼마 전에 워크숍을 운영했는데, 우리도 사실 인식 개선이 완벽하지 않더라고요. 말로는 문화다양성이라고 하지만 말이에요. 자기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토론해야 그 문제에 더 몰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또, 현장의 목소리를 자주 들어야 한다고도 생각해요. 문어체가 아니라 구어체 형식으로. 매개자 역할이 꽤 중요하겠죠. 관계자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어나갈 수 있는지가 관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완:** 현장의 목소리를 재단이 끌어오는 방법이 조금 아쉬웠다, 라고 전체적으로 정리해볼 수 있겠네요. 고베 대지진에 관한 글을 봤는데, 6천 명이 죽어서 수습하는 과정에 있어서 소수자들이나 사회로부터 격리된 사람들이 더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해요. 그 이유 중 하나가 네트워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을 했대요. 그러고 나서 다시 이런 일을 겪지 말자고 다짐을 하고, 라디오나 공영 방송 같은 걸 통해서 네트워크를 만들려고 노력했다고 해요. 일반 시민들이 시작했던 거죠. 관공서가 시작한 게 아니라. 무언가 특별한 행사나 그런 게 있었던 게 아니라, 일반 시민들끼리 문제의식을 함께 고민하면서 에너지를 만들어나갔던 거죠. 충북의 사례를 보면, 6년 동안 사업을 해왔지만 그렇다 할 게 없다는 거면 자연스럽게 풀어 나오는 게 아니라 억지로 끌고 나갔던 게 아니었나.

##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종민:** 전부 다 흩어져 있어요.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걸 하나로 어떻게 묶을까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산발적이잖아요. 방향성이 구체적이지 못해요. 예를 들면, 문화 자유 구역을 설정해서 가치를 모아 놓는 겁니다.

사회적 갈등의 여러 요인들을 해결하고 다룰 수 있는 기관이나 장치를 한 곳에 모으는 거죠. 여기만 가면 모든 게 해결할 수 있다는 느낌. 난민들이 오더라도 비자 문제를 해결해준다든가.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자유롭게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어떨까 싶습니다. 현실은 문제가 발생하면 전부 다 알아서 찾아가야 하잖아요. 그런 고민들을 한 곳에 모아두면 어떨까. 전국에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딱 한 곳에 딱. 정책적으로 봤을 때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여기 가면 다 있다.

**이완:** 제가 얼마 전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장애인 분이었는데, 서울도 다 같은 서울이 아니어서 종로에서 버스를 타면 괜찮은데 종로에서 버스를 타면 이상하게들 쳐다본대요. 흥대는 자기보다 이상한 사람들이 더 많다는 이유로. 흥대가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김종민:** 자유 구역을 하나 설정하고 그곳을 컨트롤타워로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오혜자:**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 있을지는 더 고민해봐야겠네요. 정말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만약 그런 시설이 갖춰진다면 정말

을 것 같아요. 일종의 백화점 인포메이션 같은 느낌이겠네요.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가면 다 알려준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김종민:** 연구원들을 뽑아서 국책 과제로 뽑는 건 어떻습니까? 문화다양성 자유 구역을 위한 설립 연구 같은 느낌으로.

**이완:** 일본에서는 지원센터가 아니라 교류센터라고 해요. 전부 다. 하는 일은 거의 같아요. 근데 왜 교류센터라고 하나. 지원보다도 교류라고 보는 거죠.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주고받는 걸 강조하고 싶었대요. 일방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그거 하나만으로 전부가 바뀌는 것을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 그 이름이 인상 깊더라고요. 지원이라는 말을 넣는 순간 일방적이 돼버리잖아요.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선영:** 재단은 안정적인 부분을 추구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고 봐요. 반면에 문화다양성은 안정적이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그 동안에 재단이 해왔던 사업이 문화다양성 측면에서 날카롭고 아픈 목소리만 들었냐는 또 아니거든요. 다양성이라는 건 개별적인 게 모여서 다양하게 돼버리는 건데, 충북에서 개별성이 많이 드러나는 활동이 있었는가 싶더라고요.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이주민, 장애인, 성소수자와 같은 사람들이 정책적인 대상으로 설정되어 있죠.

그들에게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겠지만, 그들이 에도 더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현재 아쉬웠던 게 개별성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그 부분을 꼬집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완:** 저도 공감합니다. 충북재단은 지나치게 안전해요. 그 가치를 추구하고요. 그렇게 보면 지역의 다양성은 억압돼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걸 헤집는 과정이 필요한 건데, 그렇게 하다 보면 시끄럽게 되겠죠. 민주주의는 원래 시끄러운 건데. 두렵기도 할 거예요. 도발적인 질문이 나오지 못했겠을까요? 자기 정체성을 여러 방면으로 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재단이 만들면 어떨까 싶네요.

**오혜자:** 문화다양성에 대한 문제가 대두된 건 비교적 최근이잖아요. 발언이 어느 방식으로든 계속될 텐데, 무뎌지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현실 인식도 중요하겠지만, 구체적으로 방향을 정하고 꾸준히 밀고 나가는 게 우선이라고 봅니다.

**이완:** 가만히 있자니 두렵고, 변화하자니 두렵고. 그렇게 있단 말이죠. 불안은 계속 증폭할 거고요. 불안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에너지는 나쁜 것만이 아니에요. 자극을 하고 속에 있는 걸 내뱉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재단은 불편한 걸

감수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도 싶네요. 공공기관에서는 또 그럴 수 있다고도 생각하고요.

**오혜자:** 최근에 포스터에 손가락이 나왔다고 이슈가 됐었죠. 검열하고 내리고 난리가 났었는데, 최근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하고요. 바람보다 빨리 늙는 풀들이 있지만 다시 일어나는 풀이 더 역센 것처럼, 문제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인식 개선이 확산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정승희:** 도서관은 조용해야 하나요?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 눈치를 보고 조용히 하는 것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문화재단도 비슷해요. 활력보다는 조금 웅크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왜 그래야 하는 거죠? 문화다양성, 문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다름을 추구해야 하는 게 아닐까요? 많은 사람들이 개방되어 있고 경청하는 환경이 갖춰져 있어야 하는데 말이죠. 여기는 과연 그런가 싶어요. 문화재단 자체가 개방성을 갖추고 활발한 교류의 장을 펼치고 있는가. 끊임없이 왜? 라고 물어야 해요.

“잠깐 하고 말 사업이 아닐 텐데, 어떤 방향으로 나가면 좋을까요?”

**정승희:** 관련해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문화다양성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다 고민해야 해요. 내부적으로 묻고 한 곳에 모아보는 것. 시민들에게도 질문해야 해요.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반영해나가는 것도 좋다고 봐요. 질문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최선영:** 작년 사업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재단 직원 분에게 그 질문을 했는데 개인으로서 생각하는 바가 아니라 사업적인 측면으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내부적으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거창한 게 아니라, 6년 동안 해왔는데 어떤 장면이 기억에 남는지. 어떤 사람의 발언이 내 삶에 영향을 끼쳤는지. 사업 브리핑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 공감하고 어떤 부분에 공감하지 못했는지. 서류로는 당장으로도 만들어 낼 수 있어요. 조금 더 구체적인 상을 논의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어떤 점을 포착하려고 노력할 것인지. 입장 자체가 조금 더 개별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완:** 직장인들 입장에서 보면 성과와 수치에 집착하게 되는 건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어디는 성과 부분에 문화다양성을 넣으면 어떨겠냐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무조건 신경 쓸 거라고.

**김종민:** 공감합니다. 내부적으로 교육이 필요해요.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조사해봐야 하고요. 여러 부분을 추가해서 직원들 내부 교육부터 힘써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기관과 여러 방향으로 얘기를 나눠보면서 생각을 알아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정승희:** 우리가 공감하고 있지 않으면 외부인에게 설명하기 어렵죠.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재미도 없고요. 일단 스스로가 문제의식에 담겨 있어야 해요. 그게 곧 사업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성과로 평가를 받긴 할 거예요. 하지만 가치가 존재하지 않으면 그저 종이 몇 장에 불과하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재단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를 해보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고민을 먼저 해보고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오혜자:** 재단 내부에서 수치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건 어떨까요? 주력 사업은 매개자 양성 과정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현장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져야 해요. 일종의 군대라고 봐야 할까요. 그렇게라도 계속해서 인식이 확산된다면 변화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예산이 조금 더 확보될 수 있다면 시/군 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는 교육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해보는 것도 좋다고 봐요. 그렇게 오랫동안 나아가면 문화 자유 구역이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김종민:** 문화다양성 사업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재단이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은 프로그램 몇 번 들을 때는 막 불타오르다가 끝나면 다시 돌아가거든요. 감사와 지속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커뮤니티를 운영한다든가, 민간 주도의 협의회를 운영해본다든가. 재단은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힘을 보태보는 것. 어떤가요? 수료생들끼리 네트워킹을 만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오혜자:** 현실적으로는 다른 방향으로 봐야할 것 같아요. 협의회 성격이 어떤지도 고민해봐야 할 것 같고, 기관의 협의회가 아니라 수료생 중심의 협의회라면 여러 방안을 생각해볼 것 같아요. 동력을 어디에 둘 것인지도 생각해봐야겠네요. 지속적인 교육은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지속성을 일단 갖춰야겠어요. 눈에 당장 보이는 게 없으니까 중단되는 경우가 많은데, 계속 해야죠.

**최선영:** 저희는 알고 있죠. 100명을 교육하면 1명 남는 수준이라는 걸. 그걸 기관 측면에서 보면 효율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100명 교육했는데 왜 100명이 아니라 1명이냐고 질책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순간에 미련한 생각으로 계속해서 사업을 이어나갈 것인지, 아니면 중단할지 재단이 이성적으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단어도 ‘장애인예술매개자’ 라는 말을 쓰지 않을 수 있다면 좋겠어요. 재단이 이런 생각도 해보고,

공감도 해보면 좋겠고요. 매개자 역할뿐만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려면 질문을 할 수 있는 자리를 계속해서 만든다든가, 같이 사업을 고민해서 알차게 만든다든가. 정도가 있겠네요. 내부적으로 합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지효:** 어찌됐든 현장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제가 일할 때 보면 대부분은 기관의 입장이에요. 다 뻘해요. 기관들이 하는 말은. 근데 현장에 가보면 완전 달라요. 재단도 그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실질적인 알맹이를 챙겨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완:** 그렇죠. 결국 허투루 지나가는 시간은 없다고 생각해요. 어떻게든 의미는 있을 겁니다. 어떤 이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의 에너지를 채워주는 자리는 지속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한 마디씩만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혜자:** ‘매개자양성과정’이라는 용어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는 말에 공감해요. 거기 에 묶여있는 느낌도 있고요. 이후에 비슷한 프로그램은 조금 더 다양한 용어로 넓혔으면 좋겠어요. 재단 측에서도 제도를 마련해보는 게 어떤지 생각하고요. 계속되는 토론과 실천이 거듭되다 보면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더 의미 있는 차기 년도를 생각한다면, 지금껏 쌓아왔던 데이터들을 바깥으로 어떻게 퍼뜨릴까 고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최선영:** 문화다양성은 다른 것과 다르게 싸우고 흔들리는 것도 성과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재단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무엇을 성과로 볼 것인가에 대해 명확히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외부에서는 그걸 성과라고 보지 않을 수도 있을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설득하고 납득시킬지 계획을 세워 봐야할 것 같아요. 무조건적으로 아카이빙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기록하고 어떻게 보여줄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종민:** 지역 간에 협업을 활발히 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강력하게 힘을 쏟았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이지효:** 내부뿐만이 아니라 외부 단체와 어떻게 네트워킹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봐야할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를 수 있어요. 다양한 사람들과 인식을 공유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인식이 퍼져나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정승희:**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안하는 것도 좋다고 봐요. 연수원에, 한 사람의 변화가 여러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있지만, 민간 영역에서 이미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과 함께 자리를 하면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 교육을 하고, 공유할 데이터가 있으면 공유하고, 그런 식으로 나아가면 조금 더 가치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성 조직은 뭉쳐있지 않고 흩어져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여러 방면으로 연락해보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언론 쪽으로도요. 사업 실적으로 남기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과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승희:** 문화다양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운동장에 모여서 얘기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해요. 재단이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큰 운동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완:** 같이 고민하는 사람들이 저희뿐만 아니라 충북 내에서도 많이 있을 거예요. 많이 연락해주세요. 좋은 결과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 <2차 집담회>

### 2021 무지개다리사업 문화다양성 2차 집담회

10월 21일

#### “시작해봅시다.”

**안태호:** 충북문화재단이 충북 전체를 관장해야 하는 거잖아요. 곤란한 지점이 많을 것 같아요. 각 시, 군마다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조직이 부재한 경우도 많고요. 일단 네트워크부터 어떻게 활성화 하면 좋을지 얘기하려고 왔는데, 그럴 만한 내용이 없네요. 대부분의 예술 활동이 청주에 있다고 들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청주 내에서 문화재단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이 있는지 고민을 해 봐야겠더라고요. 청주가 사실은 조례를 만들다가 실패한 기억이 있잖아요? 시나 당 차원에서 어떻게 만들 것인지 얘기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재단의 역할로, 다들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 “광역 중에서 충남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어떤 일이 있었나요?”

**조정민:** 제가 18년도에 인사이동을 하면서 들었던 게, 바뀌지 않으면 내년에 사업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였어요. 이전에 만들었던 기록 집을 보면서 뭐가 와 닿지 않았는지, 뭐가 재미없었는지 생각하면서 다시 리뉴얼을 하려고 했습니다. 예술인 지원사업을 재단에서 하고 있잖아요. 한번 통계적으로 뜯어보려고 했어요. 이슈를 발굴하려고 했고요. 충북에서 청년 인구가 가장 적은 도시를 조금 더 발굴하면 좋겠다는 생각부터 파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도민으로서 느꼈던 문제를 발굴하려고 했습니다. 최근에 청년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주민들 간의 갈등이 생기기도 했고, 인구가 많아지니까 유기동물들이 많아지기도 했어요. 공연이나 독서에 대한 수요는 높은데 그걸 충족하지 못하니까 대전이나 인근 도시로 인구가 다 빠지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에 대한 파생 사업을 만들었고, 권역별로 콘텐츠를 배치한 다음에 사업 스토리라인을 짰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해!’ 가 아니라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 봤습니다. 충북에는 라이벌의식이 은근 있어요. 조례를 제정하려고 많은 시도는 했는데 담론조차 형성되지 않는 현상을 봤고, 정책과 관련한 커뮤니티를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문가 선생님들이 칼럼을 만들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배포하는 일도 했고요, 도의원 한 분을 섭외해서

다른 도시랑 비교하는 방향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라이벌 의식을 이용한 거죠. 그렇게 금방 만들 어지긴 했는데 부작용이 있긴 했죠. 라운드테이블도 활성화를 해서 권역별 충남 선생님들이랑 문화다양성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전문가 분들을 모셔서 분기별 회의를 했었습니다. 많은 분들 이랑 이야기를 나누면서 앞으로 무엇을 하면 좋을지 생각해봤습니다. 제가 느꼈던 건, 충북에서는 여기 말고 활동할 데가 없다는 프레임을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다양한 곳에서 사람들이 갈증을 느끼고 있어요. 간략하게라도 좋으니 구조화를 해보면 어떨까. 두 번째로는 문화다양성 자체보다 지금 소외되고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북에서 문화다양성 사업해!’ 가 아니라 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 자체가 문화다양성 사업의 일환이라는 걸 인지해주셨으면 합니다.

#### “지역적 한계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오혜자:** 지역적 한계의 특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충북의 문화적 영역에서 지역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소외’ 같아요. 청주 중심으로 이야기는 하지만 충주나 제천이 규모가 있다고 하더라도 교류가 그렇게 많진 않거든요. 생활 문화권도 다르고, 영향을 주고받기에는 거리가 있고요. 그렇다고 충북의 문화정책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고요. 엄청 거대한 도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분산돼 있는 느낌이 있어요. 도청 소재지가 청주에 있다고 하더라도 ‘문화적인 중심점이 청주가 되고 있긴 한가?’ 하는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청주에 인구가 집약되어있다 보니까 도내에서 가장 막강하고 예산 측면에서나 교육, 의료 같은 부분들이 청주에 몰려있어서 기타 지역들은 소외감을 많이 느낄 거라고 보고요. 시골에서 의료 공백이 생긴 건 엄청 오래 됐고, 문화적 콘텐츠나 인력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다른 사업들을 보면 지역의 문화 역량이 굉장히 취약해요. 지역에 뿌리 내리는 단체를 찾는 것도 힘들고요. 거의 공백이나 다름없습니다. 충북문화재단의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문화적 격차에 대한 결핍도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모든 지표에서 끝에서 두 번째. 그런 지표를 보면서 살아가야 하는 느낌이 적지 않다는 측면에서 주체적인 역량을 키워나가는 게 충북의 목표이지 않나 싶습니다.

위성도시가 힘을 보태주는 경우가 있는데, 제천이나 충주가 위성도시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안태호:** 거리 문제가 가장 크지 않을까 싶어요. 서울에는 교통망이 잘 구축되어 있잖아요.

## “지역적 한계를 당장 해결할 수 없다면 어떻게 계획을 세워나가야 하는 걸까요?”

**조정민:** 담당자는 몸이 하나니까 모든 지자체를 돌아다닐 수 없다는 건 사실이죠.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하고 싶은 단체를 만나서 이야기를 많이 나눴어요. 소통이 필요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계속 모였습니다. 어떤 게 힘들었는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권역별로 물리적인 장벽이 있다고 하더라도 같이 무언가를 해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즐거운 일이거든요. 민간단체든 기관이든 같이 함께해서 파트너십을 맺어가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컨소시엄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하나가 전체를 담당하는 게 아니라, 컨트롤 타워로 재단이 운영을 하되 하위 기관을 조직해서 세부내용을 풀어나가는 게 좋은 거죠.

**정승희:** 진천은 이주민이랑 노인의 비율이 높아요. 터미널을 간 적이 있는데, 이주민, 노인 그리고 학생, 자가 운전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그래요. 저녁이 되면 돌아다니기 힘들고 무섭다고요. 저는 여성 단체에 있잖아요. 진보, 보수, 중도가 있는데 보수에서 하는 말이 그래요. 시골에 군, 면 어디든 단체가 있대요. 그 사람들이 만만치 않아요. 그걸 전체적으로 관통하는 사상이 여성이랑 연계하라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예술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요. 결국 사람 일이잖습니까.

그들만의 이야기라는 건 지양해야 해요. 우리들이 같이 만들어나가는 거잖아요. 대상을 딱 선을

긋는 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야 하는 건데 말이죠. 재단은 그런 일을 해야 해요. 결국은 잘 못하고 있긴 하지만요.

**조정민:** 하나 보태서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을 위한 축제가 아니라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대중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콘텐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소통이죠. 쿼어 축제라고 쿼어만, 여성 축제라고 여성만 참가하는 게 아니라. 대화의 장을 펼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사람들도 관심을 갖고 거부감을 안 느끼고 같이 즐길 수 있지 않을까요? 공감대도 형성될 거고요.

**안태호:** 단체 입장에서는 바쁘잖아요. 우리 일하기도 바쁜데, 재단 입장에서는 보면 누굴 만나라고 하면 되게 갑갑한 부분이 많을 거예요. 반대로 단체 입장에서는 왜 자꾸 만나라는 건지 의문을 가질 거고요.

**이완:** 경험적 근성이라고 하죠. 그냥 하던 대로만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지 않은 쪽으로 해보다가 실패할까봐, 재단이나 단체나 그런 입장인 거겠죠. 단체는 재단 활용법을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처음 경험을 해봐야 더 많은 콘텐츠가 많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지역적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실제로 많은 조직이 많다는 것부터 재단이 해야 하는 일까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 “어떻게 하면 첫 경험을 하게 할 것인가? 재단 입장에서?”

**오혜자:** 만나야 한다. 최초든 스쳐지나가는 것이든. 일상에서 만나는 기회가 더 늘어나야 할 것 같아요. 만나는 거랑 머리로만 이해하는 거랑 완전 다르잖아요. 저희 도서관에서도 그래요. 막상 현장에 가보지 않으면 모르는 게 너무 많거든요. 찾아가기 전에는 몰랐는데 막상 가보니까 잘 알겠더라고요. 가지 않으면 마음의 거리가 생기기 마련이예요. 허무는 건 참 쉬운데 말이죠. 그런 만남의 계기가 다양한 분야에서도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정책이 일상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재단의 역할일 것 같기도 하고요.

**이지효:** 저도 현장에 나가보면 각각의 영역에서는 다들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근데 그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장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예술 분야조차에서도 지역의 실태가 어떤지 파악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재단 인력이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현장이 가장 중요한 거는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실태 조사가 정확히 이루어져서 재단이 데이터를 다 갖고 있어야 사업이나 뭘 할 때도 수월하지 않을까 싶어요. 각각의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실태를 파악한 후에, 활동하는 분들을 모아서 만날 수 있게끔 하는 장을 구축했으면 좋겠어요. 단체로부터 단순히 자료를 받는 게 아니라, 직접 찾아가서 보고 정보를 수집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람은 많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게 1단계라고 생각해요.

**조정민:** 도 차원에서 통계자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지역민들이 좋아하는 콘텐츠, 문화부분에서 어떤 것에 소비를 가장 많이 했나 등등 말이죠. 아까 말씀해주셨다시피 독서 부분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문학을 활용한 시민 확산용 콘텐츠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김수영 작가님의 소설 속에서 소외계층에 대한 이야기를 주제로 만들어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통계 자료를 한번 본 다음에 도민이 어떤 부분에 가장 관심이 많은지 한번 알아보고, 그를 기반으로 콘텐츠를 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통계가 잘 돼있더라고요.

**정승희:** 저도 찬성입니다. 통계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완:** 지역에 많이 존재하는 조직들이 공공기관하고 연결된 적이 없었던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네트워크를 만들고 정보를 전달하고 하는지가 문제인 것 같고. 공공기관이 직접 찾아다니면서 정보를 얻어내고 해야 하는 것 같네요. 왕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나마 움직여서 지역적인 한계를 뛰어넘어가 보자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 “담당자가 빈번하게 바뀌는 문화재단의 조직적 한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태호:** 방법이 있나요?

**오혜자:** 우스갯소리로 전부 다 한 번씩 담당해보면 되는 것 아닌가요?

**조정민:** 충남에서는, 무지개다리사업은 그냥 공모사업 중 하나였어요. 공모 사업이니까 대충하면 되는 거 아니냐는 지자체가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담당자가 1년에 한 번씩 바뀌고, 관건은 재단 안에서 문화다양성이라는 비전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담당자의 위상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충북도 비슷한 이유이거나, 더 힘들거나 할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결국은, 문화다양성 사업의 비중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거든요. 팀장님 쪽에서 강력한 푸시가 있어야 활기가 돌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태호:** 무지개다리사업 같은 경우에 계약직을 많이 쓰기 때문에 연속성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조직 내부 역량 측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내부 인력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문제일 것 같아요. 내부에서 사업을 하기 전에 체크리스트 같은 걸 확인하게끔 한다면 기관 측면에서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제도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기관 내부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조정민:** 문화재단이 생각보다 문화보다 예술 분야에 치우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컬처’ 보다도 ‘아트’ 에 대한 내용인 거죠. 제가 소속된 기관도 그렇고 이전도 그렇고. 문화재단이 존재하는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문화다양성 자체도 다양한 인간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화합을 추구하고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예술보다도 문화 쪽으로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혜자:** 예술 분야에 치우쳐져있다는 인식이 강하지만, 예술 영역 안에서도 문화다양성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거기도 취약해요. 다 같이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완:** 재단 구성원의 보편적 인식을 증진 시킬 것,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재단의 중장기 계획 등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덧붙여 보면, 경영평가나 성과평가에도 문화다양성 항목이 들어가면 어떨까 싶어요. 그렇게 되면 일상생활에서도 생각하게 될 거고, 그렇게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사업이 없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 “제도적 장치인 조례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 또, 내년 실행계획에는 무엇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이완:** 조례를 통한 실태조사를 계획하고 있고, 실행계획을 짤 예정이라는 말씀을 사전에 들었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들이 내년 실행계획에 포함될 수도 있겠군요.

**정승희:** 이런 부분 때문에 조례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내부적으로 문제제기가 된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공무원을 바꾸기 위해서는 평가 내용을 바꾸는 것이 하나의 방법인데, 실태조사가 나오면 그런 걸 포함시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재단이 조금 더 간섭하면서 전체 과정을 다 알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박슬기:** 팀장님께서 실태조사를 추진할 예정인 팀이랑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문정책회의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수용해서 앞으로의 방향을 정하고 있어요.

**조정민:** 충북 내에서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 하도록 알고 있는데, 지금 구성되어 있나요? 없다면 그걸 활용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업에 대한 목표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공무원이 같이 소속되어서 하는 게 향후에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완:** 7, 8, 9조에 내용이 다 있네요. 위원회도 꾸릴 수 있고 의원도 둘 수 있고, 조례에 좋은 내용이 많아요. 위탁 조항도 있네요. 지역 협력체를 운영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포상도 있네요.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안태호:** 기본계획이 아니라 실행계획이라는 게 함정인 것 같아요. 범위가 좁잖아요. 무지개다리 사업에 돈을 조금 더 얹어주는 것뿐이에요. 기본계획차원에서 도에서 어떻게 관여하고 만들어 나가는지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할 거고, 실행계획에서도 내용이 구체화되지 않으면 있으나마나 한 조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구현하느냐는 정치적 힘에 가까워서 쉽지는 않을 거예요.

**정승희:** 문화다양성위원회가 조례에 있는데 왜 안 꾸리냐. 꾸려라. 그리고 그 안에서 위원들이 만들어나가는 거거든요. 보시면 엄청 허술한 조례예요. 문화재단을 만들기 위한 조례인 것 같기도 하고요 되게 허접한 것 같아요.

**안태호:** 충북만의 문제는 아니죠.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이완:** 조례가 있느냐 없느냐, 성공했느냐 시도 중이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조례가 있는 데 실행이 되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만든 분만 성과로 쳐주고, 제 기억으론 17, 18개의 문화다양성 조례가 있는데, 절반 정도는 완전히는 아니지만 예산을 배정하고 어느 정도 수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외에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고요. 있는 걸 잘 활용해도 좋을 것 같고, 조례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예산을 많이 주고 적게 주고를 떠나서, 문화다양성 예산 관련 일이 생기고 나니까 공무원들끼리 상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그에 대한 확장으로 파이프라인이 수월하게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혜자:** 조례가 있다는 건 중요한 문제인데, 있다는 사실이 계속 환기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것에 근거한 활동이 뭐가 있고, 의지의 문제일 것 같기도 해요. 재단에서 어느 정도 의지를 가지고 끌어갈 것인지 말이에요. 그런 걸 발판으로 해서 영역을 확대시켜나가는 것이 지금 시기에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재단이 문제를 공유하고 재단 내에서 문화다양성 사업의 입지를 공고히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내부적인 의지가 성공으로 가게끔 하는 원동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청주는 주체도 만들지 못한 채로 공모사업만 하다가 조례가 불발되는 뼈아픈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이번 토론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재단이 조금 더 힘을 내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정승희:** 위원회에 힘이 집약될 것이기 때문에 문화다양성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들을 푸시하는 것도 재단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고요. 위원회에 자리가 생기면 다른 전문가들에게 자리를 요청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이완:** 충북 조례를 만드신 의원 분이 지금 계신다면 그 분이랑 같이 연계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도 좋아 보이네요. 사업 담당 공무원, 도의원 여타 관련된 사람들과 힘을 합친다면 좋은 성과를 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 한 자리에 모여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오늘 굉장히 생산적이네요.

**정승희:** 실태조사에 대한 결과가 나올 거잖아요. 그걸 보고회 형식으로 자리를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조정민:** 실패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조례를 활용해서 정책적인 담론을 파생시켜나가야 살아남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전에 담당 공무원한테 예산을 받으려고 했는데 중간에 힘이 빠졌거든요.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다음에 사업을 계획하실 때에는 사업 명을 다른 것으로 바꾸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안태호:** 재단이 외부 강사를 초청하거나 해서 내부 직원들의 생각을 고취시키는 것에 도움을 줘도 될 것 같네요.

## “마지막으로 할 말씀이 있다면?”

**이지효:** 저도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보고회를 열고 밀어 붙여야 할 때 기사를 작성해서 대중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는 사람들이야 어느 정도 알지만, 그렇다고 그냥 지나쳐버릴 수는 없으니까요. 많이 알리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 매개자 양성 과정 같은 교육이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사업 명은 친근하게 바뀔 필요가 있어 보이긴 하지만, 그렇게라도 대중들로 하여금 인식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토론회, 워크숍, 연수 같은 것들이 지속적으로 있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기발하고, 모두가 즐겁게 누릴 수 있는 사업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현장에서 조금 더 확장하려면 조례에 있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논의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정승희:** 지난 집담회 때는 공깃돌을 흩뿌리는 느낌이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구체적인 이야기가 많아서 다행이네요. 사업 명을 어떻게 정하는지도 중요할 문제일 것 같아요. 문화재단이 다양한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 콘텐츠를 즐길 수 있게끔 하면 좋겠어요.

**안태호:** 다른 데 가서 좋은 사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경우가 이번에 만들어진 것 같아서 좋네요. 조례를 조금 더 구체화시키는 사례가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조정민:** 어쨌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려면 매력적인 카피라이팅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나의 방법인 것 같고, 하나의 프레임과 계층에 갇히지 않고 충북 도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응원합니다.

**이완:** 다양성의 차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라고 메르켈 총리가 말했죠. 차이를 견디라고, 다양성이 꽃길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수용하고 함께 해야 하는 것이긴 한데, 이제는 정말 다양성의 시대니까 **조례나 어떤 것의 문제가 아니라 재단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북 지역의 문화다양성이 뜨겁게**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6. 충북 문화다양성 사업 자료 구축

2021 무지개다리사업 추진 프로그램 관련 자료 아카이빙 및  
차년도 사업 반영을 위한 기록화 작업

### 1)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1. 5. ~ 12월
- 추진방식 : 오프라인
- 주요내용 : 2021 무지개다리사업 추진 성과 자료 아카이빙 및 기록

### 2) 추진내용

#### ○ 추진일정

구분	프로그램		실적	주요내용
1	조약돌 네트워크	정책자문위원회	3	충북무지개다리사업 추진 과정 정책 기반 마련 논의
2		라운드 테이블	1	충북내 기초재단과 협력 구조 논의
3	문화다양성 인식 개선을 위한 실험실 자문회의		1	문화다양성 인식 개선을 위한 실험실 운영과정 및 한계·성과 논의
4	문화다양성 집담회		2	충북 문화다양성의 현재와 미래 논의
합계			7	

#### ○ 주요내용

- 2021 무지개다리사업 내 정책자문, 프로그램 운영 성과, 참여 후기 등 기록화 작업
- 정책자문위원회, 집담회, 실험실, 자문회의 등 원고 및 영상기록을 통한 과정 보관



# 2021 무지개다리사업 부록

---

- 충북 문화다양성 조례
- 2021 도정 및 군 소식지 문화다양성 원고
- 2021 충청북도 무지개다리사업

## 1. 충청북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조례 제 4098호

충청북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 2017.11.10.] [충청북도조례 제4098호, 2017.11.10.,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문화도시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적 관용"이란 개인이나 집단의 국적, 민족, 인종, 종교, 언어, 지역, 성별, 세대, 학력, 정신적·신체적 능력 등의 차이에 따른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이나 참여를 제한하거나 금지하지 않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말한다. 단, 사회 미풍양속을 침해하는 문화적 다양성은 문화적 관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3조(사회구성원의 권리와 책무)

모든 사회구성원은 문화적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가지며, 다른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존중하고 문화적 관용을 가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화다양성에 기반을 둔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문화다양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및 조사·연구, 문화다양성의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지역 간 교류 및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③ 도지사는 국적·민족·인종·종교·언어·지역·성별·세대 등에 따른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이나 참여에 대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문화적 관용으로 문화다양성의 가치가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①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실행계획)

- ① 도지사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실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7조에 따른 문화다양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충청북도 문화다양성위원회)

-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충청북도 문화다양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6조에 따른 실행계획의 수립·변경 및 이행 평가
  2. 제10조에 따른 실태조사
  3. 제11조에 따른 지원
  4. 제12조에 따른 교육
  5. 제13조에 따른 전문 인력의 양성
  6.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에 관한 관계 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7.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원장이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문화예술정책·복지정책·장애인복지정책·여성가족정책·외국인다문화정책 업무 등 관계 담당 부서의 장
  2.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 정책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나 다문화 가족
-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⑦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사무원이 된다.
- ⑧ 위원회의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⑨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분과위원회)

- ①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9조(전문위원)

- ①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 ② 전문위원은 문화다양성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 ③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문화다양성에 관한 자료를 수집·조사·연구하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0조(문화다양성 실태조사)

- ① 도지사는 문화다양성을 이루는 문화적 요소,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의식 수준, 문화 향유·창조 활동 등에 관한 실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한다.
-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한다.
  - 1. 문화다양성 관련 시설 운영 및 현황, 문화다양성 서비스 제공 현황 등 지역사회 내의 문화다양성 환경에 관한 사항
  - 2.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 3.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사회적 인식에 관한 사항
  - 4. 주요 시책 사업의 문화적 영향에 관한 사항
  - 5. 지역의 주요 사업 중 문화다양성과 연관되어 있는 사업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 ③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문화다양성 관련 연구에 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 ① 도지사는 문화예술, 학술, 체육, 문화산업 등의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이나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위한 문화시설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1. 다양한 문화의 공존과 조화를 위한 활동
  - 2. 다양한 문화의 표현 및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활동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려는 경우 관련 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 교육)

- 도지사는 교사, 청소년, 그 밖에 문화다양성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문화다양성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1. 문화다양성 관련 조약, 법규 및 정책의 내용
  - 2. 지역의 다양한 문화와 민속
  - 3. 문화적 관용 및 문화다양성 가치 실천의 구체적 방법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제13조(전문 인력의 양성)

- 도지사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전문 인력 관련 정보의 수집·조사
  - 2. 전문 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재의 개발 지원
  - 3. 그 밖에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에 필요한 지원

제14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지역협력체 운영)

- ① 도지사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지역의 민간단체, 문화 기관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협력 기구를 운영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지역협력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활동 공간이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권고 등)

도지사는 문화적 차별 행위에 대하여 공공기관, 단체, 개인 등에게 시정 혹은 개선을 요청하는 권고를 할 수 있으며 권고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지원 및 점검을 할 수 있다.

제17조(포상)

도지사는 매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게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관련법령 발췌

□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12조(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학술, 체육, 문화산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문화시설을 조성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구성원이 문화다양성을 이해하여 그 보호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교를 포함한 교육시설, 교육단체 등을 활용하여 문화다양성 교육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문화다양성 전문인력 양성)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2. 2021 문화다양성 원고

〈도정소식지 5월호〉

### 다양성 존중으로 극복하는 코로나19 위기

2020년 초에 시작된 코로나 19 재난은 끝을 모르고 지속되고 있다. 한국 사회는 코로나19가 방역 위기를 넘어서, 혐오와 차별이라는 사회적 위기로 번지는 결과를 보게 되었다. 코로나 19로 시작된 사회적 위기는 전염병으로 인한 보건위기만이 아니다. 기존 한국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들이 여과없이 드러나는 혐오와 차별의 재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한국 사회는 이주민, 특정 지역, 특정 종교, 그리고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코로나 19의 확산 경로를 따라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다. 이는 코로나 19를 계기로 새로운 집단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생겨났다가보다는, 기존에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던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전염성 질환을 매개로 가시화되고 심화한 형태로 나타난 것이었다. 그동안 개개인의 다양성이 얼마나 존중받지 못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결과였다.

이런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는 다시 한번 놀라운 시민의식을 확인했다. 시민들은 특정 지역, 종교 그리고 다양한 소수 정체성에 대한 배제와 차별에 대한 우려와 자성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는 이태원에서 코로나 확산과 관련해, 성소수자에 대한 근거 없는 가짜뉴스와 혐오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이어졌다. 또한, 똑같은 위기 상황을 견디며 의무를 다하고 있는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배제 문제가 공론화되고 변화하는 계기를 만들기도 했다. 또한, 코로나 확진자 그리고 확진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받는 사회적 차별에 경종을 울렸다.

코로나 위기의 극복과정에서 한국 사회는 ‘빛나는 시민의식’ 과 ‘공동체 의식 발현’ 을 보였다. 2020년 초 외국에서 온 교민들의 격리 공간 지정 혼란으로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왔지만, 중국에는 해외에서 들어온 이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대구에 의료 인력이 필요하다는 호소에 많은 의료진이 생계를 뒤로하고 자원해서 달려갔다. 광주광역시도 대구의 어려움을 함께하겠다며 나섰으며, 많은 시민이 부족했던 마스크를 나누고, 코로나19 확진으로 힘들어하는 이들과 가족에게 손을 내밀었다. 어렵고 힘들지만 대다수의 시민들은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것 이상의 자발적 노력으로 위기 상황에 대처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한국사회의 대다수 시민은 평상시라면 하지 못했을 경험을 하게 되었다. 바로 ‘나’ 자신 또한 권리가 제한당하거나, 나의 행동에 상관없이 혐오와 차별의 대상이 되어 사회적 낙인을 받을 수 있다는 공포를 경험한 것이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얻게 된, 누구나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집단적 경험이 재빨리 잊어버려야 하는 일시적인 체험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깔린 혐오와 차별의 문제 개선과 문화다양성 증진으로 이어졌으면 한다.

모두가 경험한 차별과 배제에 의한 사회적 낙인과 그로 인한 상처는 물리적 상처가 아니므로 백신과 치료제로 해결할 수 없으며, 정부의 더 강력한 행정력으로 해결할 수도 없다. 이러한 사회적 위기는 시민들이 이미 보여주었던 것처럼, 다양한 정체성 존중을 기반으로 하는 시민의 역할이 함께해야 한다. 코로나 19 방역위기가 끝나는 곳에서, 더욱더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함께하는 진정한 사회적 회복이 이루어지는 한국 사회를 만났으면 한다.



이완 아시아인권문화연대

###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마을만들기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에서 시민이 공감하고 함께 즐기는 그 도시만의 고유한 문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사회현상 및 효과가 창출되어 발전과 성장을 지속하는 도시’  
- 지역문화진흥법 제4장

지역문화진흥법에서 말하는 새로운 문화도시에 대한 정의다. 지금 이 시대의 새로운 사회현상은 무엇일까. 언제부터인가 ‘공존’ 과 ‘소통’ 이라는 단어는 우리사회와 문화정책을 말할 때 주요 키워드가 되었다. ‘인식개선’ 이라는 말도 빠지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단절’ 과 ‘고정관념’ 의 벽이 두터워지면서 새로운 사회적 과제가 등장하였다는 의미다. 변화와 성장 속에서 생활방식의 차이로 드러난 사회적거리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물리적인 거리두기로 이어졌고, 거의 완벽하게 우리는 서로에게서 차단되었다.

관계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더라도 예전 같지 않을 것이라는 수근거림이 있다. 벼랑 끝 간절함으로 세계가 손을 잡을 수 있다면, 기후변화의 위기도 기아와 난민문제의 문턱도 넘어설 수 있는 전환의 시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하는 또다른 웅성거림에 공감하는 요즘이다.

### 마을, 관계의 일상성 확보를 위한 보루

단절과 불통의 시기에는 항상 ‘아래로부터의 혁명’ 이 요구되었다. 시민이 살아가는 가장 낮은 곳인 마을이 지닌 가치와 힘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회의 최소 단위인 마을은 다양한 문화를 가진 시민들의 치열한 삶터이자 쉼터다. 갈등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는 곳도, 다양한 문화주체들이 어울려 잔치를 벌이는 곳도 마을이다. 무엇을 결정할 때 ‘최후의 보루’ 라는 말을 쓰는데, 관계를 잃고 개인이 되어버린 사람들을 치유하고 시작할 수 있게 하는 곳이 바로 마을의 공동체성(性)이다.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복지관이나 마을도서관과 문화의 집 같은 공공성을 가진 마을공간은 최소한의 기능을 유지하여 마을의 보루가 되었어야 했다. 그렇게 문을 닫고 있어서는 안되는 것이었다. 심리적 방역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채 맞이한 취약계층의 코로나블루 현상을 고통분담의 일환으로 당연시 했던 것들도 되돌아 볼 부분이다. 마을의 거점들을 다시 살펴보고 멈추었던 기능을 회복하도록 돕는 일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실현에 대한 방법을 개발해서라도 인생 이모작 어르신들과 학교 밖 청소년들의 공연, 수화문화축제 등 다양한 주체들의 문화행사를 일상에서 누리고 지속하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다.

### 마을거점공간은 문화다양성 실현의 기지국

현대사회는 대용량의 정보를 중계하는 통신기지국 못지않게, 사람 사이의 관계를 유지하거나 생성하기 위한 다기능 마을기지국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마을도서관에서 일을 하면서 ‘읽기’ 를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자주 만나게 된다. 느린학습자나 중복장애가 있거나 외국에서 이주하였거나 ‘통상적으로 읽는 것에 장애를 느끼는 사람’ 은 일상적인 ‘읽기’ 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기 위해 ‘기록’ 하는 일은 더욱 어렵다.

사회의 구성원이 자신의 존엄을 지키고 삶을 유지하는 기본적인 권리를 확보하도록 돕는 일이 얼마나 중차대한 일인지를 알아차리는 감수성은 매우 중요하다. 서로 다른 삶의 방식이나 환경을 이해하고 도우며 함께 살아가려는 노력이 꾸준히 진행되는 지점에서 문득, 우리가 실현하고자 하는 문화혁명의 실마리를 감지하곤 한다. 나의 주위에서 찾자면 이웃에 알맞은 책을 찾아주고 읽기 어려워하는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일 같은 흔한 일들이 그렇다.

작년에 마을활동가들이 모여 다름을 이해하도록 돕는 책을 골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과정이 매우 흥미로웠다. 개인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삶의 영역이나 문화를 어떤 경로로 공감하게 되었는지 이야기속의 사건이나 등장인물의 상황으로 설명하는 자리를 통해 우리는 서로 깊이 만나고 있다는 감정을 느낄 수 있었다.

마을의 여러 기관에서 번갈아 ‘장애 인식개선’ 이나 ‘성역할 인식개선’ 을 위한 워크숍과 교육프로그램을 열기도 하는데, 생활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만나다 보면 큰 노력이 아니어도 서서히 우리가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마을공간들이 ‘문화다양성의 인식개선’ 을 이끌어내고 실현하는 생생한 현장이기를 바란다. 마을은 다양한 문화주체가 당사자로서의 토론, 향유자로서의 표현과 제안 등 자유로운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공존과 소통의 보루이기 때문이다.



오혜자 초롱이네도서관 관장

### 문화다양성, 막연한 아름다움을 넘어

‘문화’ 라는 말은 참 멋져 보인다. 아름답고 따뜻하게 일상을 채우는 문화행사도 떠오르고 사람들의 자유롭고 편안한 하루하루도 떠오른다. 하지만 문화는 삶의 양식 전반을 의미하기에 그 범위는 매우 넓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누구의 삶의 양식을 문화로 보는가 라는 질문일 수 있다. 당연히 모든 사람이라는 답변이 돌아오겠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나와 다른 외모, 종교, 취향, 신체, 국적 등을 가진 사람의 삶의 양식이 다소 낯설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문화의 일부로 인정하고 있을까? 또한 모든 사람들이 일상에서 동일한 삶의 조건들을 가질 수 있을까? 누구나 자유롭게 원하는 곳으로 이동하고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일상을 자신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채워갈 수 있어야 그 과정이 자신만의 문화로서 의미될 수 있을 텐데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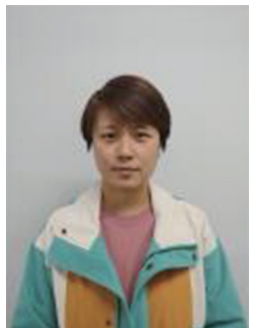
그렇기에 문화는 복잡한 삶의 조건이나 사회적인 인식 등을 들여다보게 만드는 말이기도 하다. 다양한 이슈가 물론 있지만 이 글에서는 ‘장애’ 에 대해서 문화와 연결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일반적이라고 여겨지는 삶의 조건과 사회적인 인식은 사실 비장애인 중심적 사고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장애인의 관점이자 입장에서 다시 세상을 바라보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그 과정을 살펴보면 우리는 과연 어디서부터 문화를 상상할 수 있을까?

하지만 이러한 논의를 위해서 장애인의 모습이나 상태를 일정한 유형으로 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양한 장애유형과 개별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단지 예를 들어 휠체어를 이용하는 성인 지체장애인의 삶을 상상해보자면 이 사람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해 원하는 장소에 가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것은 현실에서의 분명한 어려움이며 이동의 권리, 인간다운 삶의 권리 차원에서 차별을 받는 부분이기도 하다. 하지만 보통은 이러한 해석보다 이동을 못하는 장애인,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등의 인식이 사회적으로 더 크게 작용한다. 한 사람이 사회적 환경으로 인해 보편적 권리에서 벗어난 채 살아가고 있는데 주변환경의 문제가 더 논의되기 보다 그 어려움 속에서 도움을 필요로하는 존재로만 장애인이 부각되는 것이다. 이럴 경우 그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고 일상을 살아가는 주체적 존재로 인식되지 못한다. 자신만의 삶의 양식, 즉 문화를 가질 수 있는 존재로도 인식되기 어렵다. 장애인 스스로도 그러한 시선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의미화하는 경우도 많아진다. 하지만 인간은 누구나 자유롭고 주체적인 선택, 행위가 가능한 삶을 살아야 하고 그것은 권리로서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의 주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그래야만 한다는 이야기를 문화의 사회적 의미와 연결해서

살펴볼 수 있다. ‘문화다양성’ 은 그러한 흐름 안에서 대두된 개념이다. 사람들마다의 문화가 있으며 그 안에서 각자의 삶이 만들어낸 정체성, 역사, 관계,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장애인도 누군가가 일상적 활동을 도와줘야만 자신의 문화를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문화적 삶을 상상하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점도 포함한다. 동시에 이것은 당연한 인간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 자체를 정확하게 들여다볼 필요성을 보여준다. 한 사람의 주체성과 정체성이 타인에 의해 규정되지 않으려면 현실적, 사회적, 문화적 조건과 상황들도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문화다양성은 장애인을 위한 문화적 장치나 요소를 비장애인 입장에서 마련해야 한다는 관점과는 거리가 멀다. 그보다는 매번 무언가를 결정하고 논의하는 테이블에 장애인이 주로 등장했던 상황을 되돌아보고 장애인, 비장애인이 각자의 입장과 속도로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문화다양성이라는 개념을 일상 단 위에서 구현하기 위해서는 매우 많은 것들을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일반적이라는 인식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왔기 때문이다.

장애인 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정체성과 삶의 배경을 토대로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을 수 있는 근거로서 문화다양성은 중요하다. 누군가에게는 낯선 취미와 취향의 영역까지 이 개념은 확장되어 고려될 수 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 ‘문화’ 라는 말은 정말 멋진 말이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삶의 속도가 놓치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의 권리와 일상까지도 다시 생각해보게 만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문화에 대한 막연한 아름다움이 사회와 현실의 상황을 외면하지 않을 때 가능하다. 문화다양성에 대한 관심이 장애인을 포함한 개개인을 향하는 구체적인 의미들로 확장되기를 기대해 본다.



최선영 / 유구리최실장

### 모든 사람이 춤추는 세상, 상상하면 안될까요?

2018년 7월 UN 인권 특별보고관은 연례보고서를 제출하면서 〈다음 20년을 위한 비전〉이라는 제목의 짧은 문서를 첨부하였는데, 그 첫 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권을 추구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상하는 행위다. 그것은 양심을 범하는 야만에 맞설 때조차도, 아니 그러한 때 특히나 더, 자유의 세계가 출현할 수 있음을 꿈꾸는 의지에 바탕을 둔다. 그리고 상상은 저항 행위다. 상상을 통해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정보를 얻게 되고 동기가 부여되기 때문이다. 또한 상상은 압도적인 억압에 직면했을 때 존엄성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된다. 그래서 미래의 상상 행위에 개인적으로 그리고 집단적으로 참여할 것을 피력한 선언 제20주년을 맞아 다음 질문을 던지는 것은 적절하다. 선언과, 인권옹호자와, 그리고 이제 우리 모두가 그 구성원일 수밖에 없는 더 거대한 인권 기획에 무엇을 추가해야 하는가”

뉴암스테르담이라는 드라마를 얼마전에 보았습니다. 뉴암스테르담은 미국 뉴욕의 옛 지명입니다. 그리고 뉴욕의 오래된 공공병원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 병원에 새로운 병원장이 오게 되면서부터 생기는 변화를 드라마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병원장이 다섯차례나 교체된 병원에 부임한 새로운 병원장 맥스 굿윈. 그는 오자마자 병원의 의사들과 전체 회의를 합니다. 회의 끝에 그는 병원에 가장 많은 수익을 가져다주는 심장외과 의사들을 해고 합니다.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뉴암스테르담 병원은 영리병원이 아니라 공공병원이기 때문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환자들까지 수술을 감행하는 심장외과 의사들의 전적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돈보다 환자의 진료 그것이 우리가 있어야 할 이유라고 말합니다. 시스템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시스템이 바뀌기엔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곧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바뀌어야 합니다. 문제를 일으켜 봅시다. 다시 의사가 되자구요.”

병원의 시스템은 환자의 진료가 우선적으로 고려되며 변화합니다. 그리고 그는 의료종사자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응급실의 구조와 인력을 재배치하고 이어 청소인력과 간호종사자들의 휴게실을 개선합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병원내 의료종사자들과 환자들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제게는 이 대사가 “우리 함께 춤출까요?” 로 들려왔습니다.

모두가 춤추는 병원. 주인공 한 사람의 영웅서사에 빠지지 않고 서로가 서로에게 자극을 주고 영감을 주고 받으며 상호교감속에 모두가 주인공인 모습을 보여주는 지점이 드라마 뉴암스테르담이 주는 미덕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누구나 예외없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힘듦의 무게는 개개인에게 너무나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난은 모든 이에게 평등하지 않습니다. 재난의 시기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은 더더욱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소외를 방지하고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와 공동체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국가의 존재이유이며 공동체의 특별한 덕목입니다. 국가의 최후 목적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시민의 참여는 마땅히 보장되어야 하며 우선적으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의견을 경청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마냥 국가와 공동체에 의존할 수만은 없는 일입니다. 국가와 공동체 그리고 시민들이 현실의 구조를 바꾸고 경계없는 보편적 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요구하고 참여하는 시민. 변화의 바람은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사람이 춤추는 세상, 상상하면 안될까요?



이은규 인권연대 숨 일꾼

### 살뜰한 만남

소통을 원하는 이에게 마음을 건네는 몸짓은 안으로 따듯함이 충만함을 느끼게 합니다. 관계는 행복을 채우며 만남을 꿈꾸게 합니다. 수천의 만남과 헤어짐 속에 우리는 바다처럼 넓은 이해로 서로의 차이를 알아가며 관대한 관계를 이어나가기를 원합니다.

만남이 행복할 수 있도록 크고 많은 것을 원하기보다 작은 것에서 오는 고마움과 생동감을 잃지 않으려 마음을 다져봅니다.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뜻하지 않은 만남도 생소한 만남도 하게 됩니다. 낯설음이 크다면 마음이 이리저리 요동치게 되고 자리를 피하고만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타인에 대한 선입견이 끼어들지 않도록 무관심했던 인간관계를 되짚어 봅니다. 그리고 마음이 다시 평정심을 얻게 됨을 느낍니다.

지니고 있는 마음에 행복의 무게를 더하고 싶어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아보기로 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에 보태어 가치를 얻는 일은 내 인생에 중요한 몫을 해내는 것이라 믿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작은 도움이 커다란 대가로 돌아오는 경험을 하고 있으니 참 잘한 결정이란 생각이 듭니다.

저의 일상은 때론 느리고 때론 자기만의 언어로 세상과 소통하는 장애를 가진 이들과의 만남으로 채워집니다. 육체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하는 순간에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라 여기며 따듯한 가슴이 식지 않도록 더욱 힘을 내곤 합니다.

타인과 소통하는 방식을 생각하면 보통 말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익숙한 일상 언어로 감정을 표현할 때가 많으나 대상에 따라 표현방식을 달리 선택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험이 있다면 좀 더 쉽게 반응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당혹감에 허덕이게 될지 모릅니다.

흥분되고 분주한 몸짓을 하며 한 아이가 다가옵니다. 살짝 몸이 움츠려 뚫을 느낍니다. 어떻게 다가야 할까 고민하다 악수를 청해보았습니다.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므로 긴장을 풀고 경계심을 내려 놓고 싶어서 말입니다. 잠시 머뭇거리던 아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손을 내밀어 악수라기보다는 손끝이 닿을 정도의 응답을 보내줍니다. 처음 가졌던 경계심이 사라지고 손끝에 따스한 온기가 전해집니다. 언어를 벗어나 있는 듯하나, 몸짓 하나가 언어가 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낯선 이와 관계는 다시, 균형이 깨질 것 같은 순간을 마주합니다. 이 무너질 듯한 균형은 짧은 시간 새로이 조화를 바라는 마음을 크게 만들고 조심스럽게 마음이 머물 자리를 찾게 합니다. 서로 마주하기 전까지는 각자의 언어였다면 이제 서로 마음의 폭을 좁히는 것이 서로의 과제임을 알기에 더 나아간 표현을 기다려봅니다. 서로가 전하고 싶은 소리에 귀 기울이고, 다가갈 수 있도록, 마음의 흐름이 멈추지 않도록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내 방식대로 걸음을 옮겨 실제 느끼고 생각한 것과 부합되는 언어로 다가가봅니다. 표현의 한 부분이 된 그림 그리기 활동이 어색함을 없애고 지금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게 도와줄을 감사히 여기게 됩니다. 이런 활동에 임하면서 알아가는 과정을 감내하게 하고 신뢰를 형성하며 인내력이 촉진됨을 느낍니다.

예술활동은 정서적 표현과 경험의 수용을 돕습니다. 강렬한 정서적 강도를 가지고 있거나 주의력 저하가 있는 개인에게 존재하는 사물, 사건, 과정에 접근하고, 경험하며 표현할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해줍니다. 많은 이들이 그 길을 안내 받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삶에 있어 사람과 환경과의 소통에서 유의미한 변화를 일으키는 방법을 배울 수 있어서입니다.

표현 방식에 있어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특별한 형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기술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세상과 소통하려는 마음과 이를 위한 노력만으로도 훨씬 더 기꺼이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경험이 다양하다는 것을 잘 알기에 여러 중심 주제들이 드러남을 보게 됩니다. 예술적 행위와 이를 통해 얻어지는 만족감과 해방감은 우리가 열망하는 정서이고 추구하고픈 정서 상태가 될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주기 바라는 마음은 단순하나 받아들이는 길은 여러 갈래로 복잡하게 나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답게 살게 하는 순수의 길 위에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 위에서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들이 모이는 모습을 그려봅니다.

관계는 언제나 일어납니다. 다만, 관계를 맺고자 하는 갈망이 비판단적인 방식으로 받아들여질 때 유의미한 효과를 낼 것입니다.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유지 발전시키는 데에 편견 없이 타인을 바라보고 장애가 있는 사람과의 만남이 삶에 있어 한 부분임을 받아들여 인간관계에 기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일상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이상필 킨더리베 연구소장

### 문화다양성과 장애인

사회가 변화되어 가면서 의식 수준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장애’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었습니다. 장애를 치료나 극복의 대상이 아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자 하는 변화가 일어났고, 차별이 아닌 차이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와 맞물려 문화다양성이 인정되고 다문화, 성소수자 등의 소외계층을 하나의 문화적 산물로 인정하고 함께 어울리도록 하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에서 여전히 장애계층은 소외되어 있습니다.

다양성의 인정이라는 면에서 배리어프리나, 유니버설 디자인, 장애인식개선 사업 및 교육 등이 시작되었으나 이러한 변화 속에서 여전히 장애인은 객체라는 인식이 밀바탕입니다.

장애를 다양성으로 인식하기 위해선 무엇을 해줘야 하는 존재, 혹은 도움을 주어야만 하는 존재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실제로 이 사회에는 많은 장애인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과 장애인은 여전히 단절된 채 살아 가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당당히 사회구성원으로 자신의 삶을 능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함께 만드는 것에서부터 다양성을 위한 노력이 가치를 발현할 것입니다.

문화다양성이라는 명칭은 아직 생소한 개념입니다. 그러나 일상생활 속에서 장애인에 대한 문화 다양성을 침해하는 표현은 매우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구자’, ‘병신’, ‘얌은뱅이’, ‘장애우’, ‘장애자’, ‘정신병자’, ‘비정상’ 등등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되는 많은 일상용어들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담고 있습니다.

용어뿐만 아니라 장애인이 가족이나 기관 관계자 외에 보통의 비장애인들의 일상 안에 등장하면 신기하게 쳐다보기도 하고 특별한 사람을 만나거나 위험한 사람을 대하듯이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또한 장애인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 혼자서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최근 마무리된 도쿄올림픽의 폐막식에서 화제가 된 KBS 아나운서의 뉴스멘트가 있었습니다.

‘제 32회 도쿄 비장애인 올림픽 중계를 마칩니다’ 이 멘트는 한 동안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인식에 대해 화두를 던졌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 낸 것입니다.

오랜 세월 문화가 축적되면서 자연스럽게 주류와 비주류를 양분화 하는 삶에 익숙한 우리에게 문화 다양성이 던지는 많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장애인에게 있어서 문화다양성은 어쩌면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장애와 비장애를 나누지 않고, 장애유형과 등급을 굳이 나눠서 용어 안에 사람을 가두지 않고, 주체와 객체로 구분 짓지 않고 그저 사회의 한 구성원 혹은 한 사람으로 보는 것.

그래서 보통의 일상생활 안에서 하나의 나로 인정받고 나를 내 방식대로 발현할 수 있는 것.

그동안 ‘주류’라고 일컬어지던 이들에게는 너무나 평범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상이지만 ‘비주류’ 장애인들에게는 항상 어려운 일상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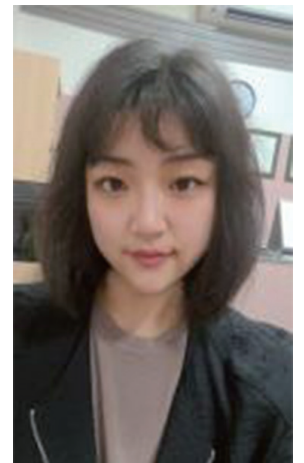
장애인의 문화다양성은 바로 이 ‘평범한 일상’에서 비로소 시작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전히 문화예술분야에서 장애인은 소외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문화적 감수성과, 예술적 표현력, 그리고 정서의 흐름이 ‘장애’라는 틀 안에 갇혀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지내듯이 자연스럽게 자신을 표현하고, 드러내는 모든 과정에서 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감수성이 발현될 것이고 그것이 비로소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장애당사자의 평범한 일상, 각자의 감성, 원하는대로의 표현들을 있는 그대로 두는 것이 이 사회에 필요한 문화다양성일 것입니다.

장애에 대한 고립된 인식이 다양성의 관점에서 개선되고, 똑같은 사람으로서 문화를 창조하고 즐길 수 있는 접근성이 높아질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김지혜 다사리학교 교무부장

## 설마 아직도 한국이 단일민족 국가라고 믿고 계신 건 아니겠지요?

### – 한국에 문화다양성이 필요한 이유

단일민족인줄 알고 살았다. 심지어 세계에서 유일한 단일민족으로 알았다. 방송에서, 교과서에서 그렇게 칭송하니 좋은 것이라고만 생각했다. 그런데, 성인이 되고나서 보니 사실과 달랐다. 우선 생물학이 드러낸 사실. 단일한 유전자만으로 세대를 잇는다면 건강한 후손을 만들어낼 수 없다. 유전자와 세포는 섞일 수록 강해진다. 다음, 역사학이 확인해 준 사실. 중국은 물론, 거란이나 여진, 심지어 아랍인까지 한반도에 와서 정착해 살았다는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로 한국인의 혈통은 순수하지 않다. 단일민족의 순수한 피는 그저 집단의 결속을 위해 특정한 목적에서 만들어진 환상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러나 어떤 환상은 강력하다. 하나의 공동체가 똘똘 뭉쳐 유지하려 애쓰는 환상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다.

한국은 어느 새 선진국이 됐다. 세계 10위권에 드는 경제대국이고, 이제 문화적으로도 기존의 선진국들을 종종 압도한다. 방탄소년단으로 대표되는 K팝, 기생충으로 대표되는 K무비, 오징어게임으로 대표되는 K드라마, 해외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K웹툰까지. K-콘텐츠의 유행은 당분간은 경쟁자가 보이지 않을 정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볼 때 한국은 문화다양성 영역에서는 우등생이 되지 못했다. 한국사회는 난민에 유독 적대적이고, 종교문제에 민감하다. 동성애 혐오발언이 빈발하고 세대 갈등이 증폭한다. 젠더와 관련한 사회적 논란이 치열하고, 장애인 이동권 확보도 버겁다. 대체 왜 그런걸까?

한국사회는 좁은 국토로 인해 지리적 단절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고, 인종이나 민족 간 갈등과 분쟁의 요소가 없었다.(그런 면에서 분단이 얼마나 커다란 비극인지 새삼 환기하게 된다.) 언어 소통에 큰 문제가 없었고, 문화적으로도 본질에서 다르다고 하기 어려운 환경을 유지해 왔다. 여기에 유교문화권의 특성과 벼농사문화권이 갖는 소규모 농업공동체의 보수성이 겹쳐져 나타난 것이 아마도 지금의 모습일 것이다. 한국에서 오랫동안 문화다양성 이슈가 이주민의 인권과 적응에 포커스를 맞춰온 것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급작스럽게 불어난 외국인 인구는 한국사회 구성원들을 타자에 대한 접근과 이해에 대한 시험대에 올려놓았고, 오랜 기간 동일성을 유지해 온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의 급증은 단일민족이라는 신화를 뒤흔들 만큼 급격한 변화로 한국사회에 충격을 주었다.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를 두고 정책적으로 접근한 것이 다문화 사업이다. 다문화주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사업이라고 이야기하는 까닭은 한국에서 유독 철학적 기반이나 문화적 접근이 아닌, 사업단위의 접근이 두드러졌다고 보는 이유다. 물론, 여기에서도 정책적 수단이나 대응은 달랐다.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비롯된 활동이 주로 인권적 차원에서 이들의 처지를 개선하는 절박한 요구로 진행되었다면,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접근은 한국사회의 인구재생산을 위한 필요라는 측면에서 동화주의적 입장을 뚜렷하게 견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국가와 민족 내외부를 가르는 지형 뿐 아니라 한국사회 내부의 다양성에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사실, 1990년대 후반 이미 개인들의 다양한 정체성 출현과 표현이 주목받기 시작했으나 세대론의 외피에 가려 본격화되지 못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21세기 들어서 이런 경향들은 더 이상 세대론만으로 붙잡을 수 없는 성격이 되어, 우리 시대 자체를 설명하는 키워드가 되어가고 있다. 문화다양성이 만발한 사회가 되지는 못했지만, 최소한 문화다양성이라는 가치를 지향하는 것이 세련된 태도라는 것을 인지하는 정도는 되었다고 할까. 차별금지법과 관련한 논란은 이러한 변화에 대한 구체제의 끈질긴 저항이라고 봐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대세는 기울었다.

현재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활동들은 나이와 국적, 장애, 성적지향, 종교 등과 상관없이 개인(특히 소수자)들의 문화적 표현들을 어떻게 진작하느냐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화다양성이 드러나는 양상을 두 가지로 본다. 하나는 보편적 인권 차원의 조명이다. 나이, 성별, 장애, 국적, 민족, 종교, 성적 지향에 상관없이 누구든 문화적 표현이 가능한 권리를 뜻한다. 두 번째는 문화적 정체성과 관련이 있다. 소멸 위기에 처한 소수/비주류 문화의 가치와 고유성을 인정하고 보호하기 위한 내용이다. 전통문화나 독립문화, 지역어 등의 존재를 아우른다. 아직까지 속도와 확산에서 아쉬움이 있지만, 한국에서 문화적 권리와 관련한 경향이 국적과 민족을 넘어 진폭을 넓히고 있는 것은 한국사회의 진화를 보여주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한 가지 짚어줘야 할 것은 문화다양성이 하나의 사업이나 활동이 아니라, 오히려 세계관이나 가치관에 가깝다는 사실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9년째 진행해 오고 있는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무지개다리 사업’은 한국사회에 문화다양성 이슈를 대중단위에서 확장하고 심화시킨 일등 공신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문화다양성이 하나의 사업아이템으로만 다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동시에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언젠가는 문화다양성이 인권과 같이 우리의 인식과 활동을 점검하는 하나의 잣대로 자리 잡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



안태호 \_ 한국문화정책연구소 이사

### 3. 2021 충북 무지개다리사업

#### 1. 2021 충북 무지개다리사업

① 충북 무지개다리사업 소개 2017 충청북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도민 모두에게 문화적 표현 자유 및 존중, 문화적 관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2021년 올해 충북 무지개다리 사업을 통해 충북 문화다양성 환경 분석 및 조사, 가치 확산을 위한 매개자양성과정을 추진

#### 2. 2021 충북무지개다리사업 추진 현황

① 장애인예술매개자양성과정 - 질문의 주인을 찾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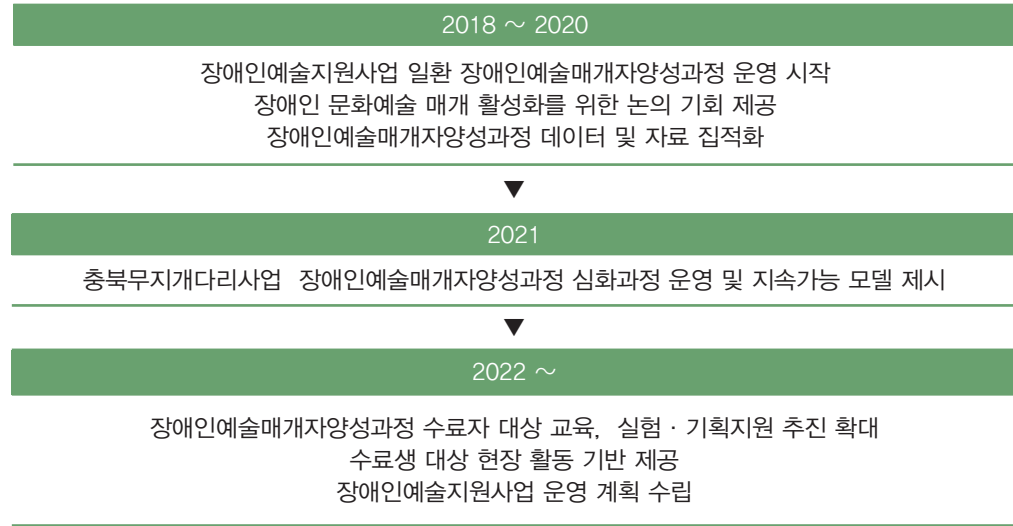
##### 1)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1. 5. ~ 10월
- 참여대상 : 2020 장애인예술매개자양성과정 수료생 5인
- 주요내용
  - 장애인예술매개자양성과정 교육 및 매 회차 연구과제 제출을 통한 지속적 교육 및 피드백 운영
  - 현장 사례 중심 참여자 간 경험 공유 및 장애인예술매개 방안 논의

##### 2) 교육 방향 및 목적

- 장애인 예술매개 관련 현장 대상 기획 추진
  - 장애 · 예술 관련 추상적 접근이 아닌 현장 연계 접근 방향 모색
- 장애인예술 매개 관련 현장의 질문
  - 현장 속 장애인, 예술, 매개 등 키워드 속 사소하지만 개별적 질문을 발견하고 대답할 수 있는 방향
- 현장중심사례 연구 및 과제 제출을 통한 장애예술 매개범위 및 방식 등 고민 확장

### 3) 장애인예술매개자양성과정 중장기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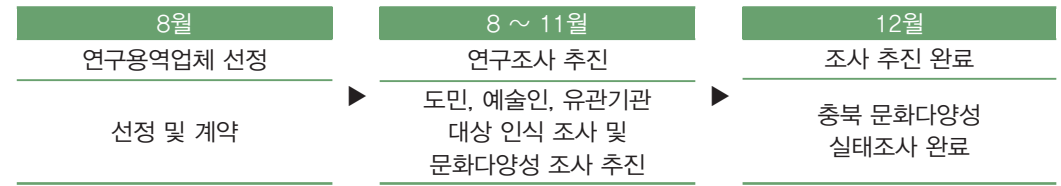
### 4) 추진 일정

구분	세부내용	일정 및 기간	강사진	방식	
입학식(OT)	오리엔테이션	5. 14.(금) 14:00 1F 상상의터	[내가 지나쳐 온 질문] · 오리엔테이션 · 질문을 공유하는 자리의 필요성과 의미소개	대면	
양성과정	1회	6. 10.(목) 14:00 1F 상상의터	[내가 가져 온 질문] · 교육참여자의 개별현장에서 촉발된 질문의 공유	대면	
	2회	7. 1.(목) 14:00 1F 상상의터	· 질문의 공통점 및 차이점에 대한 대화를 통해 상호적 학습	비대면	
	특강 장애학 강의	7. 22.(목) 14:00 1F상상의터	김도현 · 노들장애학 공리소 / 『장애학의 도전』 저자	대면	
	3회	8. 19.(목) 14:00 1F 상상의터	[내가 안 해본 질문] · 교육참여자의 개별 질문에서 등장하지 않은 질문에 대한 논의	대면	
	4회	9. 2.(목) 14:00 1F 상상의터	· 비장애인중심적 사회에서 놓치기 쉬운 질문의 영역 발견	비대면	
결과공유회	연구결과발표	5회	9. 30.(목) 14:00 1F 상상의터	[나를 떠난 질문] · 대화모임 과정에서 사라지거나 해소된 질문, 혹은 포기하게 된 질문에 대한 대화	대면
		10. 14.(목) 14:00 1F 상상의터	[이 질문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 대화모임에서 구체화한 교육참여자들의 질문을 공유하고 공동의 질문으로 확장 할 수 있는 가능성과 맥락에 대해 논의	대면	

\* 비대면은 ZOOM 시스템을 통한 화상회의로 진행

### ② 충북 문화다양성 실태 조사

#### 1) 추진개요



#### 2) 문화다양성 실태 조사



2021년  
충북 문화다양성 기초  
실태조사 결과 요약보고서

---

· 2021. 12.

## 제1장 사업 개요

### 제1절 사업 배경 및 목적

2017년 ‘충청북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관련 도내 문화다양성 환경 및 자원 현황 파악 필요

도내 문화다양성의 현위치와 생태계 진단을 통한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수립 및 방향성 설정

도내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 및 운영 발굴 토대 구축

### 제2절 사업 내용

문화다양성 관련 자원 및 서비스 등 지역 내 문화다양성 현황 조사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제도 및 수립 제반 조사

충북 문화다양성 확산 및 활성화 방향 도출

### 제3절 사업 범위 및 방법

사업 범위 및 방법

구분	문화다양성 관련 선행연구	충북 문화다양성 인식조사	전문가 인터뷰
조사 대상	충청북도	충청북도 일반인, 예술인, 문화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	문화 관련 전문가
조사 규모	-	220명	2명
조사 방법	문헌조사	대면, 온라인, E-mail 조사	비대면(화상) 인터뷰
조사 내용	문화다양성 개념 및 영역 / 충청북도 인구·소수집단 및 무지개사업 실태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	충청북도 문화다양성 인식, 제도/정책 개선 관련

## 제2장 문화다양성 관련 선행연구 분석

### 제1절 문화다양성 정의 및 범위

#### 1. 문화다양성 정의

충청북도는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의 규정을 위해 ‘충청북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를 설정함. 이 조례에서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문화적 관용’ 을 정의함. 이 조례에 따른 문화적 관용(제2조)이란 개인이나 집단의 국적, 민족, 인종, 종교, 언어, 지역, 성별, 세대, 학력, 정신적·신체적 능력 등의 차이에 따른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이나 참여를 제한하거나 금지하지 않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의미함

#### 2. 문화다양성 범위

2010년 유럽위원회에서 강령으로 시행한 ‘다양성 헌장(EU Platform of Diversity Charters)에 근거하면 다양성과 평등한 기회 증진을 위한 문화 다양성의 핵심 범위를 성별, 나이, 성적지향, 민족·인종, 장애, 종교로 설정함

독일은 문화다양성 헌장에 근거하여 성별, 나이, 성적지향, 신체능력, 민족, 인종의 내적 차원과 함께 지역, 종교, 교육, 직업 등과 같은 외적 차원을 포괄하는 다양성 범주를 설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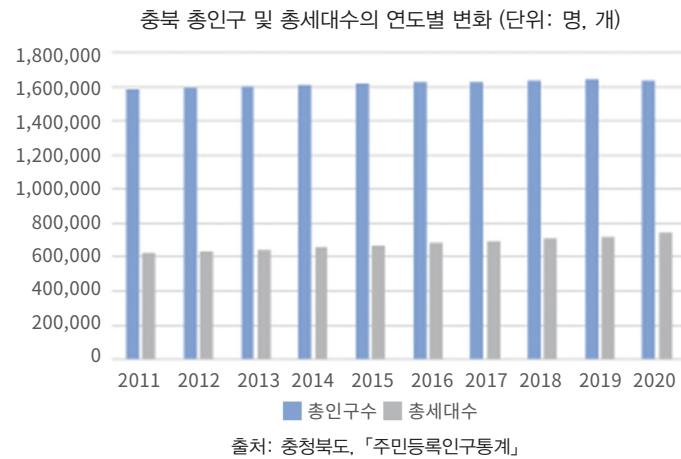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문화다양성 범위는 성별, 장애인, 외국인, 성소수자 등 소수집단의 관점에서 정의되었으나 종교, 소득, 결혼 연부, 전통, 지역, 예술 취향의 영역까지 확장되고 있음

우리나라 문화다양성 연구에 나타난 문화다양성의 범위는 소수자집단과 사회문화현상, 문화예술 분야의 영역에서 범주화되고 있음. 집단별로는 다문화 이주민,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성소수자, 장애인, 노인이 선행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주요 소수 집단임

## 제2절 충북의 인구/소수집단 현황

### 1. 충북 총인구 및 총세대 현황

2020년 기준 충북의 총인구수는 1,637,897명이며 총 세대수는 745,644개로, 인구 기준 2020년 대한민국 총인구수 51,801,449명의 약 3%에 달하는 비율임



### 2. 연령별 인구 현황

2020년 기준 충청북도 연령별 인구는 50~59세의 구성비 가장 높았고(17.0%), 40~49세(15.3%), 60~69세(13.7%)가 다음의 순서임

충북 연령별 인구수와 전년대비 증감률 (단위: 명, %)

구분	2019		2020		증감	
	인구	구성비	인구	구성비	인구	증감률
총 계	1,640,721	100.0	1,637,897	100.0	-2,824	-0.17
0~9세	130,926	8.0	124,910	7.6	-6,016	-4.59
10~19세	155,770	9.5	150,381	9.2	-5,389	-3.46
20~29세	214,681	13.1	211,650	12.9	-3,031	-1.41
30~39세	212,197	13.0	206,527	12.6	-5,670	-2.67
40~49세	249,048	15.2	246,226	15.0	-2,822	-1.13
50~59세	278,968	17.0	277,927	17.0	-1,041	-0.37
60~69세	208,238	12.7	224,266	13.7	16,028	7.70
70~79세	119,003	7.3	120,627	7.4	1,624	1.36
80세 이상	71,890	4.4	75,383	4.6	3,493	4.86

출처: 충청북도, 「주민등록인구통계」

### 3. 소수집단 현황

#### 외국인 현황

2020년 기준 충북의 외국인수는 37,060명임

충북 외국인 인구수와 충북 구성비 (단위: 명, %)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인구	25,730	24,829	27,431	30,655	32,637	35,499	36,656	39,537	40,714	37,060
구성비	1.6	1.6	1.7	1.9	2.0	2.2	2.2	2.4	2.5	2.3

출처: 충청북도, 「주민등록인구통계」

#### 다문화 가구 현황

2019년 기준 충북의 다문화 가구수는 총 11,342개임

충북 다문화 가구 및 가구원 수 (단위: 명, 개)

다문화 가구수	다문화 가구원				
	소계	내국인(출생)	내국인(귀화)	외국인(결혼이민자)	외국인(기타)
11,342	36,290	24,212	5,320	5,568	1,190

출처: 충청북도, 「충청북도 기본통계」

2019년 기준 충북의 장애인 수는 총 97,688명

충북 장애인 수와 구성비 (단위: 명, %)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인구	94,855	94,137	93,563	93,612	93,536	94,688	95,844	97,086	97,688
구성비	6.0	5.9	5.8	5.8	5.8	5.8	5.9	5.9	6.0

출처: 충청북도, 「충청북도 기본통계」

#### 북한이탈주민 현황

2020년 3월말 거주자 기준 우리나라 북한이탈주민은 31,220명

충북 북한이탈주민수와 구성비 (단위: 명, %)

구분	충북	전체	구성비
남	248	8,007	3.1
여	1,030	23,213	4.4
합계	1,278	31,220	4.1

출처: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통계」

### 제3절 무지개다리 사업 소개

#### 1. 무지개다리 사업 개요

무지개다리 사업은 새로운 문화다양성의 자원 발굴 및 다양한 문화 간의 상호교류를 지속적으로 장려함으로써 지역의 문화다양성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2년 시범 사업 이후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문화다양성 사업임

무지개다리 사업 개요

사업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최/주관: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예술위원회</li> <li>· 공모대상: 자격요건을 갖춘 광역 및 기초단위 지역권의 공공문화재단 · 공공문화기관</li> </ul>
주요사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사회 내 문화다양성 관점의 사업 개발 및 자원 발굴 사업</li> <li>· 지역사회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맞춤형 문화예술프로그램 개발 운영사업</li> <li>· 지역사회 다양한 문화주체(소수자, 다수자 포함) 간 소통 · 교류프로그램 운영</li> </ul>

#### 2. 충북 무지개다리 사업 현황

충북은 2012년 무지개다리 시범 사업에 청주대학교 평생교육원이 참여한 이후 2013년을 제외한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음. 그 중 충북문화재단은 2014년 이후 현재까지 8년째 무지개다리 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함

충북 무지개다리 사업 주관기관

기관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청주대학교 평생교육원	●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	●	●	●	●	
충북문화재단			●	●	●	●	●	●	●
충주중원문화재단								●	●

출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20), 2020년 무지개다리 컨설팅, 평가 연구

### 제3장 충북 문화다양성 인식조사 결과분석

#### 제1절 충북 문화다양성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특성은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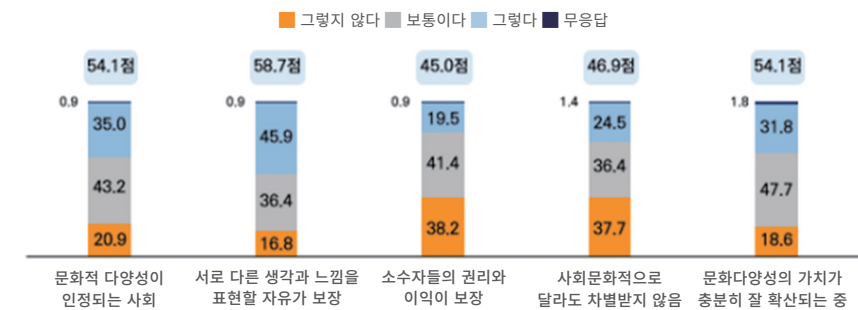
응답자 특성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비율	
전체	(220)	100.0	
대상	예술인	(47)	21.4
	단체/기관 관계자	(63)	28.6
	충북도민	(110)	50.0
성별	남성	(84)	38.2
	여성	(111)	50.5
	무응답	(25)	11.4
연령	20대	(41)	18.6
	30대	(64)	29.1
	40대 이상	(89)	40.5
	무응답	(26)	1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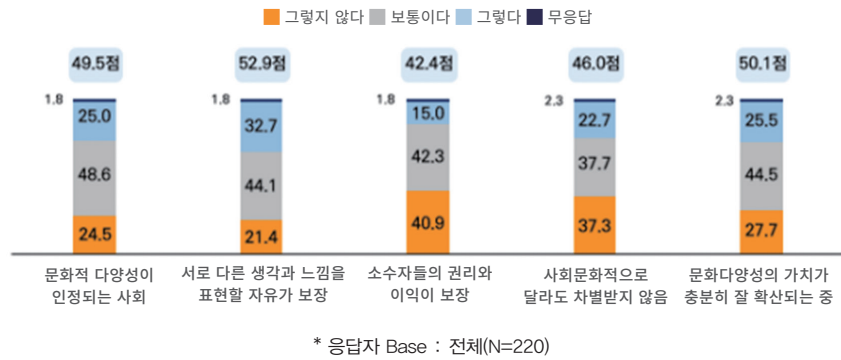
#### 1.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 수준

전체 응답자에게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 수준을 물어본 결과, 100점 만점 기준으로 서로 다른 생각과 느낌을 표현할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는 항목에서 가장 높은 수준(우리나라 58.7점, 충북 52.9점)으로 평가받았고, 소수자들의 권리와 이익이 충분히 보장된다는 의견이 가장 낮은 수준(우리나라 45.0점, 충북 42.4점)으로 평가받음

문화다양성 인식 수준 - 우리나라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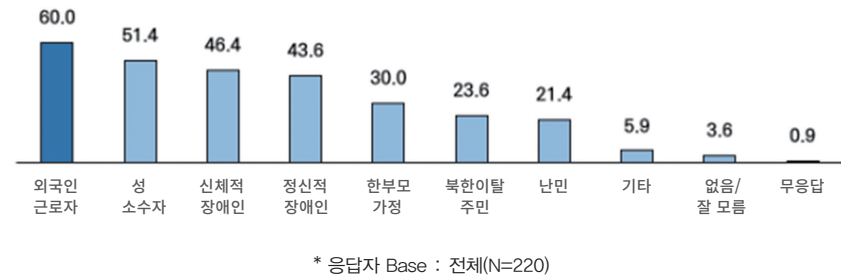
문화다양성 인식 수준 - 충청북도 (단위: %)



### 2. 사회/문화적으로 차별을 받고있는 소수집단

전체 응답자에게 충청북도에서 사회/문화적으로 차별을 받고있는 소수집단에 대해 물어본 결과, 외국인 근로자가 60.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성 소수자(51.4%), 신체적 장애인(46.4%), 정신적 장애인(43.6%), 한부모 가정(30.0%), 북한이탈 주민(23.6%), 난민(21.4%), 기타(5.9%), 없음/잘 모름(3.6%), 무응답(0.9%) 등의 순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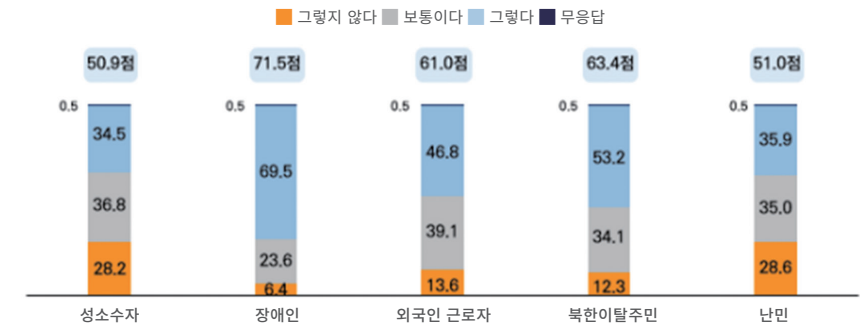
사회/문화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는 소수집단 (단위: %,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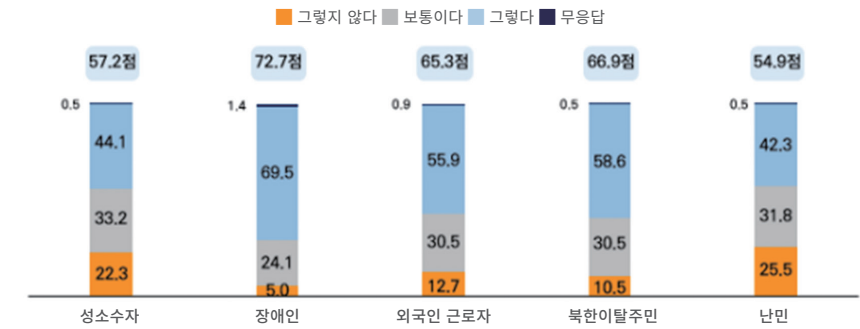
### 3. 각 구성원별 수용 가능 정도

전체 응답자에게 우리 사회의 특정 구성원을 자신의 가족/동네주민으로 수용 가능한 정도에 대해 물어본 결과, 100점 평균 기준 가족으로 수용 가능한 정도가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구성원은 장애인(71.5점),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구성원은 성 소수자(50.9점)로 조사되었고, 동네 주민으로 수용 가능한 정도가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구성원은 장애인(72.7점),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구성원은 난민(54.9점)으로 조사됨

각 구성원별 수용 가능 정도 - 가족 (단위: %)



각 구성원별 수용 가능 정도 - 동네주민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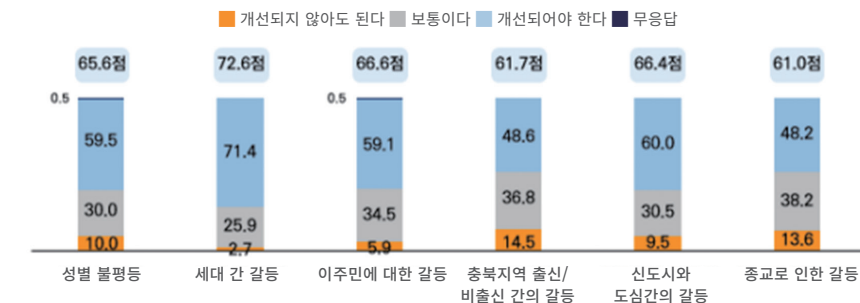


\* 응답자 Base : 전체(N=220)

### 4. 우리나라 사회 현상 중 충청북도에서 개선해야할 것

전체 응답자에게 우리 사회 현상 중 충청북도에서 개선해야할 것에 대해 물어본 결과, 100점 평균 기준 세대(연령) 간 갈등이 72.6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그 다음으로 이주민(외국인 근로자, 난민, 인종 등)에 대한 갈등(66.6점), 신도시와 구도심 간의 갈등(66.4점), 성별 불평등(65.6점), 충북지역 출신/비출신 간의 갈등(61.7점), 종교로 인한 갈등(61.0점) 순임 - 그 외 빈부격차에 대해 개선해야 한다는 소수 응답도 나타남

우리나라 사회 현상 중 충청북도에서 개선해야할 것 (단위: %)



## 제2절 전문가 인터뷰 결과

문화다양성 관련 전문가에게 충청북도 문화다양성의 인식과 사업/제도/정책 등의 개선 방법 등에 대해 인터뷰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충북의 문화다양성 인식) 충북만의 문화다양성 인식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최근 우리나라의 문화다양성으로 인한 혐오는 우리나라 구성원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급속적인 성장으로 강요된 이념 속에 있었던 한국사회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것임

(충북 소수집단에 대한 인식) 소수집단이 활동하는 것에 대한 기회/혜택은 어느 정도 있지만,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분위기는 제대로 되어있지 않음, 특히 지역적 소외감(수도권/비수도권, 도심/비도심)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충청북도 문화다양성 사업/정책 개선방안) 충청북도의 문화다양성 관련 조례 지정은 좋으나 예산을 계속 늘려가며, 활동의 지속성을 확보하여, 인식변화를 유도하여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게 중요하며, 사업을 평가할 때 성과 중심으로 평가하면 안됨, 다양한 사업의 추진/시도/과정에 대한 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

또한 문화다양성의 맥락이나 시대적 흐름에 공감하는 인재가 문화다양성 사업 관련 담당자로 임명되어야 한다는 의견임

(타 지역의 문화다양성 우수사업/정책) 경기문화재단은 현장에서 활동할 때 문화다양성을 고려할 수 있는 문화다양성 안내서를 제작하고 있으며, 부산문화재단의 무지개다리사업은 타 지역에 비해 우수한 사례로 꼽히는데, 현장의 기획자, 활동가들과 꾸준히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어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하여 과정적 실천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그 외 충북 문화재단의 역할) 공공기관, 재단의 조직 구조가 순환보직과 같은 특성이 있지만 문화다양성 사업은 지역 간 네트워크 형성 등 중장기 계획을 세워 접근해야하는 과제이므로 일반적 인 지원사업이나 운영관리하는 사업과는 차별화된 직원 배치

## 제4장 시사점 및 제언

### 제1절 충북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결과의 시사점

#### 1. 문화다양성에 대한 충북 도민 인식 제고 필요

충북도민이 문화다양성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문화다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 적극적 지원이 필요함. 또한 교육의 접점을 학교, 지역사회, 온라인, 오프라인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충북도민이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 2. 소수집단에 대한 문화적 감수성 제고 방안 모색

소수집단에 대한 이해도와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및 캠페인의 활용, 소수집단과 지역사회 주민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축제 및 봉사활동 등의 효과적 활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3. 문화다양성 추구를 통한 충북의 사회적 갈등 해결 노력 요구

충북도민들이 다양한 문화와 소수자에 대한 정보에 노출되고 그들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통해 도민의 문화다양성 역량을 증진시키는 것은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여 사회적 갈등 문제 예방과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제2절 충북의 문화다양성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언

#### 1. 충북의 문화다양성 정책 구현을 위한 중·장기적 전략 체계 구축

충북도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문화다양성 정책 구현을 위한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추진 방향, 추진 전략 및 전략 과제의 체계적 구조를 설정하는 중·장기적 전략 체계 구축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문화다양성의 존중과 가치 확산이라는 문화다양성 정책의 본질적 성격은 유지하면서 충북만의 지역성과 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문화다양성 정책과 사업의 방향성 모색이 필요함

#### 2. 문화다양성 기본계획에 따른 광역도(충북)의 역할 확립

문화다양성 기본계획의 기초에 따른 지역 기반 문화다양성 정책 구현을 위해서는 지역의 문화다양성 사업 추진을 위한 거점 기관의 역할이 필요함.

충북권에서는 ‘조약돌 네트워크’ 운영을 통해 광역 단위의 네트워크 구축과 광역 문화재단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따라서 광역 단위의 문화다양성 센터와 같은 광역도의 문화다양성 거점 기관의 설립은 문화다양성 정책 구현 및 사업 운영을 위한 물리적 공간 제공과 지역간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는 허브(hub) 역할 수행을 통해 문화다양성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3. 지속가능한 문화다양성 정책 구현과 사업 운영을 위한 기반 마련

충북의 지속가능한 문화다양성 정책 구현과 이에 따른 사업 운영을 위한 제도 및 조직적, 인적 기반 마련의 노력이 필요함

문화다양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조례에서 명시된 문화다양성 지원사업, 교육, 전문 인력 양성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전문적인 문화다양성 사업의 기획자, 운영자, 매개자를 육성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제도의 활용 방안 모색이 필요함

### 4. 소수집단의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 필요

문화다양성 사업 대상은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과 특정 소수집단을 대상으로 구분할 수 있음.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 개선과 가치 확산이라는 목표 관점에서는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중적인 사업 실행이 효과적일 수 있음.

이러한 관점에서 충북문화재단이 수행하고 있는 장애인문화예술지원사업은 소수집단의 특성을 반영한 문화다양성 사업으로 의미 있게 해석될 수 있음. 충북 지역 장애인은 전체 충북 인구의 6%로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등 다른 소수집단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비중 있는 소수집단임. 문화예술창작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장애인문화예술지원사업을 통해 장애예술인들의 방식과 문화적 표현의 형태로 그들을 표현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소수집단에 대한 감수성 제고와 충북지역 예술 다양성 확대 및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음

문화예술향유의 관점에서 장애인문화예술지원사업을 통한 장애인 대상 문화예술교육 기회 제공은 소수집단에 대한 문화적 격차 해소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문화다양성의 실천 방안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됨. 따라서 이와 같은 소수집단 대상 사업 발굴 및 운영의 지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5.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과 유기적 협업 필요

문화다양성 정책과 사업 운영의 성공을 위해서는 충북문화재단의 중추적 역할을 중심으로 중앙 정부, 타 권역, 충청권 내, 또한 충북 지역 내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과 유기적 협력이 필요함. 유기적 협업 체계는 공공부문에서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및 민간의 기업 또는 유관단체까지 확장 적용될 필요가 있음

이와 같은 공공과 민간 영역과 지역적 범주를 넘어서는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은 문화다양성 정책 및 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집단)의 상호보완적 협업을 통해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과 도민의 문화적 다양성 역량 함양에 기여할 수 있을 것

2021 무지개다리사업 결과자료집

# 오색빛깔 조약돌

발행처

발행일

발행인

기 획

문 의

후 원

디자인

